

석사학위논문

# 산파 견습생

The Midwife's Apprentice

-카렌 쿠쉬먼-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변영미

2004년 12월

# 산과 견습생

지도교수 김 원 보

변 영 미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2월

변영미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_\_\_\_\_인

심사 위원\_\_\_\_\_인

심사 위원\_\_\_\_\_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04년 12월

# The Midwife's Apprentice

Byun Young-mi

(Supervised by Professor Kim Won-bo)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December 2004

## 목차

### ABSTRACT

1. 똥더미 .....	1
2. 고양이 .....	3
3. 산과 .....	6
4. 방앗간 집 여자 .....	9
5. 상인 .....	13
6. 이름 짓기 .....	17
7. 악마 .....	21
8. 쌍둥이 .....	26
9. 집행관 부인의 아이 .....	29
10. 소년 .....	33
11. 마을을 떠나서 .....	37
12. 여인숙 .....	39
13. 손님 .....	45
14. 영주의 저택 .....	49
15. 에드워드 .....	52
16. 산과 견습생 .....	61
작가의 말 .....	65
작가 소개 .....	67
참고문헌 .....	68

## Abstract

This book portrays a girl named Alyce who at first had no name, no mother and no home, and wanted nothing. The girl is a laughing stock everywhere just because she looks dirty, ugly and stupid. One day she encounters a midwife, who is very sharp and stingy, and begins to work for her in return for a room in the midwife's cottage. At first no one in the village pays attention to the girl. One day she rescues a red haired boy, Will, from drowning and later helped a woman named Joan give birth to a baby in the absence of the midwife. Before she realizes that she has grown in knowledge and skill, the people of the village realize that she has guts and good sense. However, she gets in trouble in Emma Blunt's cottage when she goes there to help her have her baby.

Feeling devastated and a failure, she leaves the village without any notification and becomes an inn girl for survival. There, on a wet day, guests including a struggling mother come to the inn. Alyce summons up her courage to take care of the mother in labor woman and finally saves her and her baby. After that, people want to be with her and ask for help and advice. For the first time, however, she starts to think of what she wants and finds herself wanting to be the midwife's apprentice who "tries and risks and fails and tries again and does not give up."

This book has a didactic element as well as episodes that make readers giggle. The author, Karen Cushman, documents the course that the leading character travels through hardship and extremely unfavorable conditions. In the process, children can witness the girl achieve something step by step. Moreover, Alyce herself shows that being calm and having courage are very important at crucial moments.

## 1. 똥더미

동물의 똥과 음식 찌꺼기를 부서진 지푸라기와 섞어 높이 쌓아올리면 부패를 일으키면서 열이 발생한다. 그 코를 찌르는 악취 때문에 보통은 그런 사실을 눈치챌 만큼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한 여자아이는 그 열기를 감지했고, 서리 내릴 듯 추웠던 그날 밤, 냄새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온기를 내면서 썩고 있는 똥더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똥더미에서 풍기는 냄새는 꽤나 심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아이가 지금까지 접했던 것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 부엌 주변을 뒤져서 먹었던 음식 찌꺼기, 운이 좋아야 들어가 잠을 잘 수 있었던 마구간과 돼지우리, 때 국물이 줄줄 흐르고, 제대로 먹지 못해 마르고, 사랑한 번 받아보지 못한 그녀의 볼품없는 몸뚱이에서 나는 냄새도 그에 못지 않았다.

그 아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학대 받은 아이처럼 잔뜩 겁에 질린 듯한 아이는 작은 체구에 찢기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영양실조에 걸린 듯, 뼈만 앙상한 모습에서 제법 여자다운 티가 나는 것이 대략 열 두어 살쯤 된 것으로 보였다. 이 여자아이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그 아이도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그녀는 제 집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꼬맹이란 별명 말고는 제 이름도 몰랐으며, 자기 것이라곤 가져본 적이 없었다. 꼬맹이는 틀림없이 누군가 자기를 낳아서 연못으로 아장아장 걸어 들어가지 않도록 보살피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기저귀를 갈아줬을 것이라고 추측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꼬맹이가 기억하는 대로라면 자기는 여태껏 혼자 살아왔고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했다는 것이다.- 양파를 흠쳐 먹기도 했고, 저기선 마구간 바닥에서 하루 밤 재워주는 대가로 추수를 돕기도 했다. 한 마을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사람들이 갈퀴와 몽둥이를 휘두르며 쫓아내기 직전에 그녀는 또 다른 마을로 향하곤 했다. 아늑한 집, 따끈따끈한 빵, 포근한 엄마 품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다. 다만 흠이 묻지 않은 깨끗한 순무를 먹어보고 싶다는지, 배가 터지도록 마구 먹은 돼지가 썩 고약한 방귀 냄새가 아닌 막 해다 놓은 건초 냄새 그득한 헛간에서 자봤으면 하는 상상을 했을지 모르겠다.

오늘 밤 그녀는 잘 썩고 있는 똥더미에 자리를 잡았다. 바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었기에 그날 밤 그녀는 아무런 꿈도 꾸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그 날 밤 매서운 추위만큼이나 싸늘하고 어두웠다.

아침에 내린 비로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꼬맹이의 배는 구두 발에 차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굶주림. 꼬맹이는 배고픈 게 제일 지긋지긋했다. 아니, 추위가 제일 싫었을까? 어쨌든 꼬맹이는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삶이 고단했고, 오직 그것들을 잊기 위해 매일 잠에서 깨어나, 끊임없이 걷고, 끊임없이 일해야 한다는 것만큼은 잘 알고 있었다.

“똥 벌레! 똥 벌레! 똥 속에서 자는 냄새 나는 똥벌레 할망구.” ~  
사내아이들이다. 어느 마을에 가든지 항상 그녀를 골탕 먹이고, 놀리고, 괴롭히며 발길질을 해대는 아이들이 있었다. 비쩍 마르거나 제일로 못생기고, 어딘가 모자라서 항상 사람들의 놀림거리였던 아이들이 자기들보다 더 못생기고 더 멍청해 보이는 계집아이를 만났던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녀를 멸시하고 못살게 굴었다. 어느 마을을 가나, 항상, 그녀는 눈을 감아버렸다.

“야, 요 녀석들, 저리 꺼져. 늑이들이 길을 엉망으로 만드는 바람에 새로 산 내 스페인 가죽 신발이 더러워지잖아. 저리 가!?”

“그리고 너, 계집애. 넌 죽은 거니, 죽은 척 하는 거니?” ~

꼬맹이는 한쪽 눈을 떴다. 늑지도 젊지도 않은 중년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서있었다. 똥똥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보통 체구였다. 뽀족한 콧날과 예리한 눈초리, 풀을 먹여 뽀뽀하게 주름을 세운 머리쓰개를 한 그녀는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 ~그 여자는 말했다. “죽지 않았군. 널 내다 버릴 집행관은 부를 필요가 없겠구나. 그만 거기서 나와 썩 꺼져라.” ~

배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엄습하자 꼬맹이는 용기를 내보았다.

“제발, 뭐 좀 먹을 수 없을까요?” ~

“우리 마을에 거지는 없다. 저리 가.” ~

“제발, 아주머니, 먹을 것 좀 주세요.” ~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어.” ~

꼬맹이는 강한 의지와 힘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한쪽 눈도 마저 떴다.

“일할게요, 아주머니. 제가 보기보다는 제법 힘도 세고 똑똑하다구요?!”

“똥더미가 따뜻하단 것도 알고 제법이긴 한데, 알았다. 할 줄 아는 게

뭐야?” ~

“뭐든지요, 아주머니. 게다가 저는 많이 먹지도 않아요.” ~

보야하니 꼬맹이에게선 굶주린 티가 푹푹 났다. 산과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아이를 썩먹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럼, 어디 일어나봐, 벌레야. 그리고 있으니까 똥 속에 꿈틀거리는 똥벌레가 자꾸 떠오르잖아. 일어나, 벌레야, 그럼 니가 할 일을 곧 찾아보마.” ~

그렇게 ‘벌레’ 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꼬맹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서자, 날카롭게 생긴 여자는 벌레에게 몇 가지 일을 시킨 뒤 그 대가로 마른 빵과 쭉쭉스름한 맥주 반 잔을 내주었다. 그 맛이 어찌나 달던지 벌레는 그날 밤 다시 똥더미 속에서 잠을 자면서 내일은 더 많은 일을 해서 빵을 더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바라던 대로 일은 더욱 많아졌다. 그 여자의 오두막집에서 바닥을 쓸고, 개울에서 린넨을 빨았으며, 곧 아이가 태어날 집으로 여자의 짐 꾸러미를 대신 챙겨가기도 했다. 매섭게 생긴 이 여자는 산과였던 것이다. 벌레는 곧 산과 견습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고 똥더미만큼 따뜻하진 않아도 그보다 훨씬 좋은 냄새가 나는 잠자리도 얻게 되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2. 고양이

고양이 한 마리가 양지 바른 곳에 누워 기지개를 펴고, 배를 활고, 발톱 사이에 난 깔죽깔죽한 털을 자근자근 씹곤 했는데 그 모양을 바라보는 것이 벌레의 낙이었다. 그녀는 무서워서 감히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턱 바로 밑에 때묻은 오렌지 빛 털에 하얗게 빛나는 얼룩무늬가 있고, 한 쪽 귀는 무엇에 물렸는지 뜯겨나간 자국이 있으며, 고양이를 생기발랄하고 귀엽게 만들어주는 콧수염이 위 아래로 제각기 뾰뾰하게 뻗어있음을 멀리서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고양이를 처음 봤던 강가 울타리 근처에 가끔 빵이나 치즈를 놔두었다. 산과는 벌레에게 많은 일을 시키면서도 대가를 지불하는 데는 인색했던 터라 벌레는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어서 고양이에게도 그다지 자주 먹을 것을 줄 수는 없었다.



한번은 쥐구멍에서 추위에 잔뜩 얼어있는 새끼 쥐들을 발견하자 벌레는 그것을 고양이 먹이로 주려고 울타리 곁에 갖다 놓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털도 안 난 조그만 새끼 쥐들이 억센 고양이 턱 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파서 거름더미 깊숙한 곳에 잘 숨겨주고 고양이는 자기대로 사냥을 하게 내버려두었다.

구석으로 몰아넣고 놀러대기를 일삼는 사내아이들은 벌레에게 하듯이 고양이도 괴롭혀댔다. 그러나 아이들보다 더 썩싸고 민첩한 고양이는 항상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벌레는 그러지도 못하고 꼬집기, 찌르기, 침뱉기 등을 꼼짝없이 당해야만 했다. 선불리 대항하다가는 공연히 더 큰 놀림을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벌레는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피해 다니며, 될 수 있으면 숨고, 머리를 숙이고 어깨를 구부린 채 마을 주변에 아무도 모르는 샛길로 종종 거리며 다녔다.

어느 햇살 좋은 아침, 저녁으로 먹을 빵을 슬쩍 해서 주머니에 넣고 고양이와 나눠먹을 오래 묵은 치즈 조각을 가지고 울타리로 향했다. 아이들이 벌써 와 있었고 꼬리를 잡고 고양이를 높이 쳐들고 있었다. 고양이는 쉼쉼거리며 으르렁대고 있었고, 벌레의 귀에 그것은 악마가 내는 소리같았다. 벌레는 귀를 틀어막았다.

“고양이를 자루에 같이 넣어, 잭.” 한 사내아이가 말했다. 고양이가 장어를 이길 수 있을지 보자구.”

그리고 장어와 고양이가 들어있는 자루가 연못으로 내동녕이 쳐졌다.

고양이를 잃는 것보다 선불리 나섰다가 아이들이 더 놀리고 괴롭혀달까 두려웠던 벌레는 계속 숨어있을 수밖에 없었다.

물에 빠진 자루가 곧 갈대 연못 속으로 가라앉았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 잭, 네 말이 맞는가 봐. 장어가 고양이를 곧바로 해치웠어.” 요홀리 개 사내아이가 이빨 빠진 아이에게 사과 두 개를 건넸고 그들은 모두 들판으로 다시 돌아갔다.

숨어있던 벌레는 한 참이 지나서야 나무 뒤에서 나와 진흙탕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근처 진흙 속에서 부러진 막대기를 주워 들고 벌레는 연못을 살살이 뒤졌다. 자루가 가라앉은 지점과 주변을 찰러보면서 가운데서부터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나아갔다. 마침내, 연못에서 반쯤 나왔을 때 자루를 발견했다. 흠뻑 젖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벌레는 자루를 물 밖으로 끌고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 가만히 살펴보았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막대기로 찢어도 보았다. 꿈쩍하지 않았다.

“고양아,” 그녀가 불렀다. “죽었니? 내가 자루 열고 꺼내주면 좋은데, 장어 때문에 너무 무섭다. 고양이?”

벌레는 지저분한 맨발로 자루를 걷어찼다. 기척이 없다. 그녀는 자루를 두고 다시 마을로 향했다.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마을로 갔다가, 또 돌아왔다.

“, 고양이,” 그녀는 소리쳤다. “난 무서워서 못 열겠단 말이야.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잖아.”

벌레는 날카로운 돌맹이를 가지고 자루를 쓱 베어보더니 달려가 나무 뒤에 숨었다. 그러자 마치 악마처럼 보이는 빛나는 갈색 장어가 미끈하게 빠져 나와 연못으로 들어갔다. 그래도 자루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벌레는 자루를 바라보았다. 아무 기척이 없다. 가까이 기어갔다. 여전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갑자기 뭔가 움직이는 듯하자 비틀은 나무쪽으로 쩍째게 달아났다. 그리고 나서는 또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기어가서 물에 흠뻑 젖은 자루 속에 지저분하고 짙은 오렌지 색 고양이를 찾아냈다. 자루와 뒤엉켜 있는 축 늘어진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빼내 앞다리를 들고 꺼내올렸다. “젠장, 고양이, 내가 널 살려줄게.”

벌레는 제 땀에는 치마라고 여기는 누더기를 찢어 만든 형겁으로 고양이를 단단히 감싸고 샛길을 달려 마을로 돌아갔다. 그녀는 거름더미 속에 구멍을 파서 고양이를 놓았다.

아는 기도 말이라도 있었다면, 벌레는 고양이를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부드럽고 감미로운 노래라도 좀 알았더라면 고양이에게 그것을 불러줬을 것이다. 부드러운 말로 달래는 법이라도 좀 알았더라면 다정하게 고양이에게 속삭여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벌레가 아는 것이라곤 “망할, 고양이, 숨 좀 쉬어, 죽지 말란 말야, 이 벼룩에 물려 죽을 놈아, 안 그럼 내 손으로 콧 죽여버린다.”

그러나 고양이는 하루 종일 똥더미 속 구멍에서 움작달작하지 않았다. 벌레는 일을 하다가도 몰래 짬을 내, 고양이를 보러 와서 형겁으로 좀더 단단히 감싸주고 숨이 끊어지지 않는지 확인해보곤 했다. 벌레가 두 번이나 두고 온 치즈 조각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었다.

벌레가 저녁을 먹고 나서 다시 확인하러 갔을 때는 해가 지면서 옅은

안개가 피어 오르고 있었는데, 고양이도 치즈도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거름더미 속 구멍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남루한 형겉 조각과 자루에서 풀려 나왔던 실밥들만 남아있는 걸로 봐서 고양이는 조심스레 털을 고르고 밤길을 나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이틀 후 (마을의 휴일인 ‘숙녀의 날’이었지만 그날도 산과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밥을 먹여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벌레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었음) 고양이는 울타리 위에 앉아 하얀 얼룩무늬를 더 하얗게 하려는지 계속 활아대면서 벌레와 치즈조각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벌레가 오자 둘은 앉아서 치즈를 함께 먹으며 숙녀의 날을 기념했다. 그리고 벌레는 지난 기억을 더듬으면서 여태까지 자신이 살아온 얘기를 고양이에게 들려주었고 그들은 양지 바른 곳에 나란히 잠들었다.

### 3. 산과

그녀의 이름은 제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산과 제인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뾰족한 콧날과 날카로운 눈매 때문에 벌레는 항상 마음속으로 그녀를 제인 샤프라고 불렀다. 제인 샤프는 여섯 명의 아이를 낳았고 (죄다 죽었지만), 매주 일요 미사에 참석하고, 손힘이 좋고 손톱이 청결하다는 이유로 산과가 되었다. 힘과 약간의 노련함이 있긴 했지만, 제인에겐 세심함이나, 연민 혹은 즐거움이 빠져 있었다. 그녀는 마을에 있는 유일한 산과였다. 벌레를 데리고 있으면 혈값에 일을 부릴 수 있었고 경쟁상대가 되기엔 너무 멍청하고 겁쟁이었던 덕분에 안심하고 견습생으로 부릴 수도 있었던 것이다. 산과에게 안성맞춤이었다.

벌레는 오두막집 바닥에서 잠을 잤고 하루 두 번 양과, 무, 말린 사과, 치즈, 빵 등을 먹었고 가끔은 베이컨 조각까지 곁들인 식사를 하기도 했다. 이것이 벌레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래서 봄철이 다가와 벌거숭이 관목과 나무 가지에 초록빛 새싹이 돌아나고 마을 사람들이 여름 수확을 위해 질척거리는 밭을 갈기 시작할 무렵에도 벌레는 산과의 견습생으로 남아 있었다. 제인 샤프는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한번은 그녀가 지나가자 우유 한 통이 굳어버렸는데, 이 일로

벌레는 가끔 제인 샤프가 마녀가 아닐까 두려워하곤 했다. 그러나 벌레는 제인이 젊지도 늙지도 않고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으며 뽀족한 콧날, 예리한 눈매, 풀을 먹여 주름이 뺨뺨한 머리쓰개를 하고 있던 처음 모습 그대로일 뿐임을 알고 있었다.

아침마다 벌레는 불을 지폈다. 밤 새 타다 남은 불을 후후 불어 새 장작에 불이 옮겨 붙도록 했다. 그녀는 오두막집의 땅바닥을 쓸고 그 위에 물을 뿌렸으며 흙이 굳도록 바닥을 밟아 주었다. 그녀는 베이컨을 굽고 컵과 칼을 씻고 벼룩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개망초에 물을 뿌려 주었다. 그녀는 병, 물통, 온갖 가죽 플라스크로 가득 찬 선반의 먼지도 털어냈다. 각각의 용기에는 용의 똥과 생쥐의 귀, 개구리 간과 두꺼비를 태운 재, 달팽이 젤리, 보라고 잎, 썩기풀 즙, 검은 오리나무 껍질을 뿜아 만든 가루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오후가 되면 비틀은 마을을 벗어나 숲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꿀을 채집하고, 올가미로 새도 잡고, 약초를 캐고, 거머리를 잡고, 거미줄을 해왔다. 고양이도 늘 그녀와 함께 다녔다.

어떤 산모가 도움을 청할 때, 그 집에서 은화 한 잎이나 새로 짠 옷감 혹은 그 집 닭장에서 있는 최고의 암탉을 줄만한 형편이 되기만 하면 산파는 벌레를 데리고 아기가 태어날 집이면 어디든지 찾아갔다. 벌레는 깨끗한 린넨과 아이를 빨리 나오게 하는 금방방이풀과 매발톱꽃 씨, 산모를 씻기고 진정시키는 브리오니아 넝쿨과 솜털 보송보송한 까마중, 젖을 나오게 하는 염소수염과 젖이 너무 많이 나올 때 쓰는 샬비어 잎을 다려 만든 약, 액운을 불리치는 부적인 벽옥 돌, 마녀들을 물리치는 겨우살이풀과 딱총나무 잎사귀 등을 넣은 바구니를 날랐다.

산파가 안에서 마법을 부리는 동안 벌레는 밖에서 기다렸다. 벌레가 처음으로 제인을 따라 어떤 오두막집으로 갔던 날, 제인은 뒤따라 들어가려는 벌레를 찰싹 때리고, 정신이 나가서 도무지 앞뒤 분간을 못하는 등신이라고 욕을 해대며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그녀를 밖에 세워 두었다.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제인 샤프와 산모는 뜨거운 술에 국화꽃과 육두구를 끓여 마시면서, 벌레를 불러 흙으로 더럽혀진 지푸라기를 정돈하고 린넨을 빨아오라고 시키곤 했다. 한번은 제인이 벌레를 집으로 보내 산모의 열을 내리기 위해 검은 건포도 시럽을 끓여오게 하기도 했다. 벌레는 자신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제인이 기술과 마법을 비밀로 하기위해 자기를

집안에 들이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마을 사람들이 씨를 뿌리기 위해 밭갈이를 하기 시작할 무렵, 벌레가 뭔가를 캐오고, 음식을 끓이고 약초를 달이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지만, 제인 샤프는 품삯을 흥정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진통이 시작된 산모가 돈 한 푼 없다는 이유로 제인이 아이를 받지 않은 적이 두 번 있었는데, 그 때 불쌍한 두 여자는 이웃의 도움만으로 아이를 낳아야 했다.

산과의 탐욕스러움에 사람들은 화가 치밀었지만 그래도 마을에 산과는 있어야 했기에 그들은 누구 하나 불러주는 사람 없는 견습생에게 영뚱한 화풀이를 했다. 벌레는 그들이 화를 내도, 조롱을 해도 묵묵히 참아냈고, 그녀의 말을 들어주고 가끔은 동정의 표시로 제 머리를 다리에 비벼대는 고양이에게 하소연할 뿐이었다.

미풍이 불고 들판은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는 봄이 오자, 마을 사람들은 조생 콩과 보리를 심었고, 그 다음엔 사내아이들이 돌을 던져, 씨를 쪼아 먹으려는 굶주린 새들을 쫓아냈다. 잭과 와트가 벌레와 그녀를 쫓아다니는 고양이에게 돌팔매질을 해대면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저 웃어댈 뿐이었다. 비틀은 그저 산과의 미련한 견습생일뿐 그들에겐 아무 상관 없는 아이였던 것이다.

노동절이 지나고 얼마되지 않은 어느날 아침, 직공의 딸인 케이트가 들판에 들어누워 배속에 아기가 이제 막 나오려 한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아버지 로버트 위버와 케이트의 남편인 말더듬이 토마스가 산모를 집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케이트가 소리를 지르며 팔을 하도 뿌리치는 바람에 깨끗한 지푸라기를 모아다가 아기 받을 자리를 만들고 산과를 부르는 수 밖에 없었다.

제인 샤프는 케이트를 살펴보고 토마스와 품삯을 흥정하더니 팔을 걷어 부쳤다. 그녀는 벌레를 집으로 보내 필요한 것들을 바구니에 챙겨 오도록 했다.

“하나라도 떨어뜨리거나 빼먹으면 안돼, 새대加里같은 계집애. 꾸물대면 알아서 해.” ~

벌레는 선반에서 갖가지 병을 챙기고 천정 가로대에서 말린 약초 묶음을 꺼내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어떻게 그 많은 시럽과 분말가루, 연고, 약초 등을 겉모양과 냄새만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

게 깜짝 놀랐다. 산과는 글 쓰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표시를 해줄 수도 없었고, 설사 그녀가 글을 쓸 수 있다 해도 벌레가 그것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케이트는 발에서 온 힘을 쥐어짜고 있었다. 쟁기질, 씨 뿌리기, 혹은 김매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아기에게 첫 세상 구경을 시켜주려는 것이었다. 벌레는 곁에서 지켜보고, 제인은 무릎을 꿇고 케이트를 일으켜 세우며 소리쳤다,

“힘줘, 암소야. 동물이 하면, 까짓거 너도 할 수 있어.” 그러자 케이트는 힘을 주었고, 제인은 아이를 쑥 빼내 손에 안았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벌레는 자루에서 그 고양이를 꺼냈던 때가 생각났다. 그리고 벌레는 산과의 마법과 그녀의 노련한 숨씨로 이룬 기적을 봐서 잠시나마 그녀의 모난 성격을 용서해 주었다.

그 후 벌레는 산과를 따라 나설 때면, 창문으로 안을 열심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산과 일이 주문과 마법도 필요하지만, 힘들고 지혜로워야 하며 나래지치로 만든 강장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 4 . 방앗간집 여자

어느새 여름이 찾아오고 마을에는 온갖 나무와 덩불에 이파리가 돌아났다. 교회 마당의 길가에도, 마을 광장으로 난 길을 따라 뛰어 가는 꼬마 여자아이들의 머리카락에도 꽃이 활짝 피었다. 온 세상이 꽃으로 만발했다면, 산과의 오두막은 갑자기 빵으로 넘쳐 났다. -저녁 식사용 부드러운 호밀빵과 야식으로 먹을 바삭거리는 갈색 귀리빵, 따뜻한 여름날 아침에 시원한 맥주에 적셔먹을 곁이 딱딱한 롤빵 등이 있었다. 별안간 넘쳐 나는 빵을 산과와 같이 먹으면서도 굳이 그 배경에 신경 쓰지 않던 벌레는 배불리 실컷 먹고 나서야 이상한 기분이 들어 뭔가를 캐내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렸다. 갑작스레 풍족해진 빵이 미심쩍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어디서 났을까? 어떻게? 어째서?

곰곰이 생각하고 주의 깊게 살피고 귀를 기울인 끝에, 벌레는 산과가

수상적인 불일을 보는데 빠져 있음을 알아냈다.

“벌레야, 나 방앗간에 귀리 빵으러 간다. 다녀오는 동안 쓴 애기풀 빵아 놓고, 썩은 끓여서 시럽을 만들어 놔라.” ~그리곤 나가버렸다. 귀리를 챙기지도 않고.

때로는, “벌레야, 조안 옛더브릿지에게 나래지치 강장제를 가져다 줘야겠다. 연고에 쓸 거위 기름 다 끓여놔라.” ~그리고는 가버리는 것이었다. 강장제를 챙기지도 않고.

때로는, “벌레야, 암탉 모이를 줘야겠다. 췌기풀 차 달여서 깨끗한 물병에 길어 놔라.” ~그리고는 외출해 버렸다. 마지막 암탉은 몇 주 전에 이미 수프를 해먹었고 그 닭장은 가끔 배고픈 개가 행여나 하며 들르는 것만 빼면 텅 비어 있었다는 걸 벌레는 알고 있었다. 이런 수상한 행동을 보고 호기심이 발동한 벌레는 산파가 이런 식으로 일을 보러 간다고 할 때면 나무 뒤나 울타리 뒤로 숨으면서 들키지 않게 조심조심 산파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고양이도 벌레의 꿈무늬를 바짝 쫓았다. 그 모양이 꼭 성채 축일 날 교회마당으로 향하는 행렬 같았다. - 산파, 벌레, 그리고 고양이 순으로. 매 번, 산파는 올드 노스길 근처 밭으로 갔고, 그때마다 벌레는 들키지 않도록 낮은 포복으로 기어야 하는 게 걱정이었다. 그래서 벌레는 그 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일이 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낼 수 없었다.

어느 화창한 날 아침, 성 요한의 날 이브 사흘 전, 벌레가 말했다. “아주머니, 영주 농장의 메그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었더니 다리가 쭈신다고, 거위기름 연고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통증을 가라앉히는데는 아주머니 거위기름 연고만한 게 없다고 하시던데요. 연고 값은 달걀 네 개와 버터로 치르겠대요.”

칭찬도 듣고 연고 값을 받을 생각을 하자 기분이 한껏 부푼 산파는 곧장 집으로 오라는 등, 그 다음엔 뭘 해야 한다는 등 하는 말도 없이 벌레를 농장으로 보냈다.

벌레는 영주의 농장으로 달려가 기름연고를 메그에게 들이밀고 달걀과 버터를 재빨리 받아 치마에 묶어서, 비밀 셋길을 달려 올드 노스길 옆에 있는 밭으로 갔다. 그녀는 버터와 달걀을 구멍 뚫린 나무 속에 조심스럽게 넣고 그 밭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나무에 올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인 사프가 마을로 난 길목에 나타났고, 한편 다른 쪽 길로는 김이 모락

모락 나는 따끈따끈한 빵이 든 바구니를 들고 제빵사가 나타났다. 제인 샤프와 제빵사가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를 퍼붓는 바람에 화들짝 놀란 벌레는 그만 나무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게다가 제빵사는 화덕 뒤편 오두막집에 멀쩡하게 아내가 살아있고 자식을 열 셋이나 둔 남자였다.

제빵사는 벌레의 머리를 낚아챘고 산과는 하는 일도 없이 염탐이나 하고 다니는 견습생들은 두들겨 맞고 일도 더 해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인은 씩씩거리면서 말했다. “아무한테도 말해선 안돼, 말했다간 당장에 내쫓아서 추위에 오돌오돌 떨게 해줄 테니까. 그 전에 니 무릎도 박살을 내버릴 테다.”

“제가 말 할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러세요?” ~벌레가 대꾸했다. “제 말벗이라곤 고양이 밖에 없어요. 개는 누가 키스를 하건 하나도 관심 없어요.”

용기를 내 그렇게 말하고 나서, 벌레는 버터와 다행히 하나만 깨진 계란을 나무 구멍에서 꺼내 들고 곧장 달아났다. 뒤를 따라오던 고양이에게 벌레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넌 이 얘기 재미도 없을 거야. 이건 하나도 흥미진진하지도 않고, 모험담도 아니고, 니가 사족을 못쓰는 나비나 들쥐, 생쥐, 크림, 나방 같은 게 나오는 얘기도 아니거든.”

벌레는 오두막집으로 가는 내내 고양이에게 중얼거렸고, 집에 도착하자 마당에서 암소에게 설익은 사과를 던져 주면서 산과가 돌아와서 매질을 하고 더 많은 일을 시키기만을 기다렸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방앗간집 남자가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 왔다.

“산과가 필요해!”

“아주머닌 집에 없는데요.”

“어디 갔니?”

“말할 수 없어요.”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벌레는 말할 수 없었다.

방앗간집 남자는 벌레의 팔을 잡았다. ? “그러면 똥벌레 니가 해야지” ~~

-그는 벌레의 팔을 붙잡고 그의 집까지 질질 끌고 갔다.

“난 못해요” ~~그녀는 말했다. “무서워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른단 말예요. 난 못한다구요.”

그러나 방앗간집 남자는 계속 잡아 끌었고 어느새 벌레는 그의 집에 가



있었다. 아래층에는 방 두 개가 있고 위층에는 다락방이 하나 있으며, 마치 왕이나 교황들만 잠을 잘 것 같은, 사방이 커튼으로 둘러싸인 포근하고 높다란 침대가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집에 가본적이 없었던 벌레는 다른 때 같았으면 그 집을 방문하게 된 것을 몹시 기뻐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이고 그럴 때가 아니었다. 포근하고 높다란 침대에 누워있고 창백한 여자가 누워서 사과가 오기를, 사과가 아니면 벌레라도 데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방앗간집 남자는 벌레를 침대 쪽으로 떠밀었다. “사과 견습생이 당신을 도우려고 왔어, 여보. 이젠 괜찮을 거야.” 그리고 그는 나가버렸다.

방앗간집 남자의 부인은 커다란 침대에 불편한 듯 누워있었다. 그녀는 벌레의 팔을 붙들고 외쳤다. “나 아기 낳지 않을래. 아이를 갖는 게 아니었어. 제발 좀 멈춰줘. 이제 그만 할래.”

“난 못해요.” 벌레가 말했다. “너무 무서워요.”

그러자 부인은 더 큰소리로 설새 없이 외쳐댔다. 벌레는 사과가 이런 상황에 어떤 말을 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사과가 ‘젓 먹던 힘까지’와 ‘힘 쥐, 암소야’라고 외쳤던 게 생각났다. 그러나 벌레가 그렇게 말했을 때는 사과가 했을 때와 똑 같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이구 이런 망할, 멍청이를 보냈잖아! 이 등신! 얼간이 같으니라구!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려구!” 재된 소리를 내지르며 방앗간집 여자는 벌레의 팔을 뿌리치며 침대에 누운 채 ?따듯한 맥주가 담긴 병, 빵 반쪽, 소시지, 넘쳐흐르는 침실용 변기까지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벌레에게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벌레는 방구석으로 도망가 잔뜩 움츠렸고, 방앗간집 여자는 집어 던질 것을 찾으려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베이컨 조각. 스투 한 그릇. 지팡이. 감축이 부드러운 모자와 누군가의 바지.

마을 사람 절반은 죽히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 소동의 진상을 확인하러 그 방으로 몰려왔다. 여름의 태양, 궁금증을 참지 못한 사람들, 애를 낳지 않겠다고 때를 쓰는 산모의 몸부림으로 방이 후끈 달아오르자 벌레는 자기가 지옥에서 악마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 지경이었고, 그래서 그녀는 덩달아 비명을 질렀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고 현관에는 사과가 서있었다. 방안의 열기 때문에 사과의 살갓에서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완두콩과 양파로 만든 푸딩이 날아와 그녀의 발에 떨어졌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나가.” 잔과는

소리쳤다. “나가라구!” ~그녀는 또 다시 고향을 질렀다. “나가라니까!” ~잔파의 호통에 방은 어느새 텅 비어있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산파는 짹짹 소리 지르는 방앗간집 여자를 철썩철썩 갈겼다. 벌레는 세는 것도 잊어버렸다. 마침내 산모의 비명도 산파의 매질도 멈추었다. 산파는 산모를 다시 보드라운 높다란 침대에 눕히고 멍든 얼굴을 들어 다복썩 차 한 잔을 목구멍으로 흘려 넘겨주었다.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산모의 진통은 다시 시작됐고, 드디어 “아기가 나왔다” ~다중에 벌레는 고양이에게 이 얘기를 해주었다.

바로 그때 산파는 방 귀퉁이에 있던 벌레를 발견했다. “등신.” ~산파는 소리쳤다. “맹추!”

그녀는 또 고향을 질렀다. “빙충맞은 것” ~산파는 호통을 쳤다. 그리고 그녀는 벌레를 밖으로 끌어냈고, 방앗간집 남자가 잡았던 바로 그 팔을 붙잡고 그가 했던 대로 마당을 가로질러 다시 산파의 오두막집으로 질질 끌고 갔다.

벌레는 그래도 개의치 않았다. 그 방에서 나온 것이 감사할 따름이었다.

그 후 몇 주간, 산파는 이 견습생을 벌레가 아닌 얼빠진 자식, 멍청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불렀고, 산파의 집에서 쫓겨나 다시 춥고 배고픈 신세가 되는 게 두려웠던 나머지, 비틀은 두 배로 열심히 일하고 말수는 반으로 줄였다.

## 5. 상인

한여름이 되자 들판에는 건초가 말라가고 있었고, 모든 마을 사람들은 무사히 수확을 마치고 겨울을 나기 위한 곡식을 저장하는 일이 끝날 때까지 비가 오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었다.

산파는 가죽 플라스크, 육두구, 후추, 그리고 살인범이 손을 씻은 물을 다시 사와야 했기 때문에 고브넷 언더그린에서 열리는 성 스위던날 축제에 다녀올 계획을 세웠다. 벌레는 축제에 가 본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스투를 끓여 먹을 순무나 돼지 뼈다귀를 구걸하기 위한 것일 뿐, 배불리 먹고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볼 여유가 있었던 적은 결코 없었다. 그녀는

산파와 같이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아직도 산파는 벌레를 얼빠진 꼬맹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녀는 물어보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그래서 제인은 떠나는 전날 그녀가 없는 동안 벌레가 해야 할 일 수십 가지를 일러주면서 혼자 떠날 준비를 했다.

벌레는 이것이 중요한 여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산파는 물방앗간에서 몸을 씻고 햇빛에서 머리를 말리고 제일 좋은 머리쓰개를 꺼내 뽀뽀하게 주름을 세웠다.

산파는 일을 하면서도 노래를 흥얼거렸고, 벌레는 음정도 없는 그 노래가 아마도 마녀의 주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야 그것이 연습, 감수성, 부드러움 어느 모로 보나 노래를 부르기엔 좀 부족한 누군가가 부른 ‘여름이 오네요’라는 노래였다는 것을 알았다.

햇빛 아래 새로 뻗 옷들이 잔뜩 널어진 오두막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산파는 대장장이인 윌터씨의 두 번째로 최고 좋은 돼지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그 바람에 왼쪽 다리가 접질리고 말았다. 그녀의 저주 섞인 욕설을 들은 벌레는 산파가 마녀가 아닐까 하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악마와 내통해본 사람만이 그런 말을 알고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벌레가 마멋(다람쥐과 동물)만큼이나 멍청하고 옷 입은 당나귀마냥 굶뜨다고 산파는 호통을 쳤지만, 벌레가 그녀를 돕기 위해 오두막으로 들오는 것이며 그녀의 지푸라기 침대에서 자는 것을 허락하기도 했다.

“다쳤어, 이런 망할. 다쳤어.” “산파는 발목을 만져보면서 앓는 소리를 했다. 그녀는 벌레에게 등골나무 약초를 묶고 그것을 형겁으로 싸는 방법을 말해주기 시작했다. 벌레는 산파가 이제 걸을 수도, 일을 할 수도 없게 되어서 자신이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했다. 사실 그것은 벌레가 산파를 대신해서 성스위딘의 날 축제 장터에 가게 될 것임 의미했다. 벌레가 은화를 잃어버린다거나 돈을 너무 많이 쓴다던가 아니면 엉뚱한 물건을 사올 경우엔, 주변머리 없이 해놓은 짓 좀 보라며 산파는 호통을 치겠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가슴은 설레었고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성스위딘의 날 아침, 타오르는 태양은 건초를 말리고 마을 사람들도 들뜨게 만들었으며, 은화 네 잎과 양파와 빵을 챙기고 설레는 마음으로 고브넷 언더그린으로 향하는 벌레의 머리 위에서도 빛나고 있었다.

고브넷 언더그린으로 가기 위해 벌레는 길을 따라 북쪽으로 걸었다. 풍차를 지나고 화살 제조인인 스티븐의 오두막집에서 동쪽으로 돌아서,

보라빛 파란 아마꽃으로 짙게 물든 대저택의 밭을 가로 질어서, 배리 언더버켄헤드에서 다시 북쪽으로 걸어가고, 그렇게 동쪽과 북쪽을 향해 계속 걸었고, 마침내 고브넷 언더그린 광장에 있는 성 스위딘의 날 축제장에 도착했다.

벌레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길을 가는 내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고브넷에 거의 닿을 때까지 그녀를 졸졸 쫓아온 배고픈 염소에게 빵과 양파를 던져주었다. 축제장에 도착했을 때 벌레는 현기증을 느꼈지만 허기진 상태로 뜨거운 햇빛을 맞았기 때문인지 화려한 축제 분위기에 있다는 짜릿함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고, 이유가 어찌됐든 비틀은 상관하지 않았다.

벌레는 네모난 깃발이나 삼각기를 내건 휘양 찬란한 가게들이 즐비한 곳을 지나갔다. 구리술, 루비, 진주, 신기한 동물의 뼈, 머나먼 곳에서 온 계피와 생강, 영국 콘월에서 온 주석, 링컨셔에서 온 밝은 초록빛의 모직물 등 온갖 종류의 다양한 물건이 있었다. 그녀는 강아지들을 보고 웃고, 점쟁이들을 보고 신기해하고 가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경주마에게는 응원을 보냈다. 고기 굽는 냄새, 갓 구운 빵과 돼지고기, 건포도로 속을 넣은 파이 냄새가 그녀의 코를 자극했지만, 벌레는 여전히 축제의 짜릿함에 신이 나서, 그저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오전이 지나 정오가 되자, 벌레는 장터를 둘러보았다. 오후 늦게야 그녀는 자신이 장터에 간 이유를 떠올렸다. 그리고 공짜 물건이 어디 없나 기웃거리고 나서야 벌레는 육두구와 후추를 샀다. 교수형 집행인이 살인범이 손을 씻은 물을 파는 곳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지만 벌레도 한 병은 얻을 수 있었다. 컵 공장이 늘어선 거리의 크트머리에서 비틀은, 성딩애드와 바이거 교회 바로 앞에서 가죽 플라스크를 제일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곳으로 찾아갔다.

그 상인의 가게도 갖가지 기이한 물품들로 가득 차 있었고 빛나는 놋쇠 바늘, 빨간 리본과 라벤더빛 리본, 구리 수저와 청동 칼, 발가락 부분에 자수 장식이 된 고급스러운 빨강 가죽 부츠, 반질반질한 나무와 상아로 만들어진 머리빗이 있었다. 벌레는 엉킨 머리를 빗거나, 머리카락에서 엉경귀를 털어낼 때도 자신의 손가락 이외에 다른 것을 써 본 일이 없었고 아마도 일생을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머리빗들 중에, 양쪽의 빗살 사이에 잠자는 고양이 새겨져 있는 머리빗이 있었다. 그 모양이 영

락없는 벌레의 고양이였고 그녀는 그것을 갖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랐다.

한참 동안 그것을 들고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나무의 향을 맡아보며, 벌레는 그 고양이 빛에 넋이 나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크게 한숨을 내쉬며 빛을 내려놓고 플라스크를 사기위해 상인과 흥정을 하기 시작했다. 흥정이 난생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벌레는 사뭇 진지하면서도 상냥하게 물건을 샀고, 이 비쩍 마른 어린 꼬마에게 호감이 간 상인은 쩡긋 윙크를 해 보이며 고양이가 새겨진 빛을 플라스크가 든 벌레의 가방에 던져 넣었다. “그 긴 곱슬머리를 윤이 나도록 빗으려무나 그럼 틀림없이 어두워지기 전에 연인이 나타날 거야.” “다시 윙크를 하고 그는 다른 손님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 머리빗은 이제 벌레의 것이다. 벌레는 누가 그것을 채 갈라 숨죽이고 서있었다. 그녀는 너털너털한 옷과 가끔 먹을 수 있는 순무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제 것으로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고양이 빛은 벌레의 것이었다. 그녀는 눈치 채지 못했지만, 상인의 윙크와 곱슬머리에 대한 그의 말도 마음씨 좋은 그가 준 선물이었고 그 일은 벌레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벌레는 가방을 어깨에 짊어지고 마을로 향했다. 성 당애드와 바이거 교회 앞에서 그녀는 머리를 빗기 위해 멈춰 섰다. 곱슬머리. 이 엉킨 머리가 곱슬머리였던가? 벌레는 말 여물통에 기대어 고요한 물에 비친 그녀의 머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분명 곱슬이었다. 머리카락은 커다란 눈과 뾰족한 턱의 수척하고 조그만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커다란 코와 큰 귀, 시장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곱슬거리리는 머리카락. “이게 내 모습이야, 벌레야.”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또 다시 바라보았다.

“엘리스, 이봐 엘리스, 좀 도와줘.” “한 남자가 벌레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그녀는 엘리스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엘리스, 여기야, 여기에 뭐라고 쓰였지?” “그는 무슨 표시가 있는 가죽 조각을 벌레의 눈 앞에 들이밀며 말했다.

그녀는 눈을 깜박거리며 그를 쳐다보았다. “엘리스가 누구예요?”

“웃지말라구, 엘리스. 여기 이 표시는 내가 경마에서 이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좀 읽어줘 보라구. 코브와 그룸 녀석이 날 속이는 게 아닌지 확인해야 해. 뭐라고 쓰여있지?”

“난 엘리스가 아니에요.”

“암, 그렇고 말고.” 답자는 몸을 굽히고 벌레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어디 보자.” 그는 벌레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엘리스가 아니잖아! 엘리스를 닮긴 했네. 엘리스는 어디 있는 거야? 엘리스!” 그는 코브와 그룹이 경마에서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엘리스를 찾으러 갔다.

벌레는 완전히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도대체 이게 뭔가. 그녀는 오늘 링크도 받고 칭찬도 듣고 선물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글을 읽을 줄 아는, 그녀가 생판 모르는 엘리스라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다. 그녀는 정말 글을 읽을 줄 아는 누군가와 닮았던 것일까? 벌레는 몸을 굽혀 다시 한번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이런 얼굴도,” 그녀는 말했다. “글을 아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네. 곱슬머리도 가졌겠다, 어두워지기 전에 애인이 생길 수도 있어. 이게 내 모습이야, 벌레야.” 그녀는 별안간 숨을 죽였다. ‘벌레’는 사람에게 붙이는 이름이 아니었고, 글을 읽게 생긴 사람의 이름도 아니었다.

얼굴을 찡그리면서 벌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마치 마음 속에서 햇불이 타오르는 듯, 그녀의 얼굴이 빛났다. “엘리스.” 그녀는 숨을 내쉬었다. ‘엘리스’란 이름은 깨끗하고 상냥하고 푹푹하게 느껴졌다. 엘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사랑받을 수도 있어. 그녀는 물에 비친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게 바로 나야, 엘리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렇게 새 이름을 얻은 엘리스는 가방을 다시 고쳐 땀고, 고개를 들어 당당하게 맨발을 땅에 디디며 산과의 오두막집으로 향했다. 마음속에 흥분과 기쁨에 넘쳐 서늘해지고 어두워지는 지도 몰랐다.

## 6. 이름 짓기

산과는 이빨 하나가 또 빠졌다. 그리고 접질린 발목 때문에 절뚝거리며 걷다가 나이며 이빨 그리고 사는 것에 화가 치밀어 구리솔과 요리용 숟가락을 집안 여기저기에 마구 내던졌다. “뺏아버리기 전에 내 눈 앞에서 썩 꺼져, 똥벌레야.”

“엘리스.”

“날 뭐라고 부른 거야?”

“아주머니가 아니고, 저요. 엘리스예요. 제 이름은 엘리스라구요.”

“엘리스!” 잔파는 월터 스미스의 크고 검은 말, 토비처럼 콧방귀를 췌다. “엘리스! 넌 엘리스보단 두꺼비나 족제비 아니면 뚝부기를 더 닮았지.” 잔파는 그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벌레가 가는 곳마다 술을 하나씩 내던졌고, 벌레는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밖에 나가면 이런 고문은 없다. 밖에서는 술을 저울 일도 없고 병을 채워 넣을 일도 없으며, 요리하는 불로 연기가 자욱할 일도 없었다. 햇빛이 후텁지근하긴 했지만 오늘 아침 바깥 공기는 시원했다. 그녀가 여태까지 줄곧 살았던 곳이 밖이었다.

밖에는 고양이도 있었다. 그녀는 새 이름에 대해서 고양이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엘리스. 그녀는 아직 큰 소리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이미 산파에게 말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었다. “엘리스.” 엘리스는 그녀의 발목에 얼굴을 비비며 그르렁대고 있는 고양이에게 말했다. “나도 이제 이름이 있어, 고양이, 그리고 너도 이름이 있어야 해. 그래야 내가 축고, 안개 낀 날에 아침을 먹으라고 널 부르지. 내가 이름 몇 개를 댈게. 맘에 드는 게 있으면 말하는 거야.”

벌레는 땅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다. 고양이는 앉아서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버드나무?” 그녀는 물었다. “쇠비름? 매미 나방? 렌즈콩? 고양이는 그저 엘리스를 바라볼 뿐이었다.

벌레는 일어서서 한 손은 배에 얹고 다른 한 손은 입에 댄 채 강가로 걸어갔다. 벌레는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브리오니아? 땃돌? 복실복실?”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그렇지, 벌레야? 망앗간집 남자가 지나가며 말했다.

“엘리스.” 벌레가 말했다.

“엘리스가 누구데? 누가 엘리스야?”

“제가 엘리스예요.” 벌레가 대답했다. “꼬맹이도 아니고 똥벌레도 벌레도 아니고, 엘리스라구요.”

“어이구.” 망앗간 남자가 말했다. “돌맹이 엘리스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 음, 겁쟁이도 좋네. 엘리스라. 쳇!”

“흙소나무?” 벌레는 고양이에게 계속 말했다. “다트무어 고원? 치즈제

조기? 감탕나무? 돼지?”

“넌 누구를 돼지라고 부르고 있지, 요 얼빠진 똥벌레야?” ~~~대장장이의 똥똥한 딸인 그로미트가 말했다. “이 고양이한테요.” ~~~벌레가 대꾸했다.

“그리고 전 엘리스예요.”

“넌 바보야.” ~~~그로미트 스미스는 코웃음을 치고, 똥똥거리면서 가버렸다.

벌레는 한숨을 쉬었다. 이름을 가진다는 일은 보기보다 힘들었다. 이름은 그것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별 쓸모가 없었다.

고양이는 제 몸을 벌레의 발목에 감고 그르렁댔다. “참매발톱꽃? 오징어?”

“그르렁.” ~~~고양이는 대꾸했다.

“잡초 뭉치? 쉬로베타이드? 송곳?”

“그르렁.” ~~~고양이는 다시 대꾸했다.

‘고추냉...’ ~~~

“그르렁.” ~~~고양이는 요구하는 듯 했다.

“그르렁?” ~~~벌레가 물었다.

“그르렁.” ~~~고양이는 대답했다. 바로 그거였다.

벌레는 그르렁과 함께 햇빛 속을 걸으며 산파의 화가 누그러져서 빵과 치즈, 양파를 한두 개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다렸고, 마을 사람들은 들에서 마지막 벼단을 들여오고 건조 수확도 마무리되자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면서 그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에 감사해 했다. 몇몇 사내아이들은 술에 고주망태가 되어 분별력을 상실하고 잔치가 벌어진 곳을 빠져 나와 사고칠 일을 찾아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벌레를 발견한 것이었다.

“똥벌레, 나한테 뽀뽀 해봐.” ~~~빨강 머리 사내애가 말했다.

“엘리스.” ~~~고양이는 이미 혼자 줄행랑을 쳤고, 벌레는 아이들에게 에워싸인 채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재가 널 엘리스라고 부르는데, 월. 니가 계집앤 줄 아나 봐, 아님 저택에서 오신 참한 아가씨거나. 똥벌레하고 친하게 지내시나 보죠, 엘리스 아가씨?” ~~~이빨 빠진 아이는 맥주 한 모금을 입에 물더니 월에게 뽀뽀했다.

월이 한눈과는 새를 틈타 벌레는 그의 팔 아래로 머리를 획 숙이고 치마 뒷자락을 다리 사이로 잡아당겨 강으로 난 길을 내달았다. 사내아이들



이 더 빨리 뛰었지만 그들은 맥주를 마셨기 때문에 벌레가 먼저 강에 이를 수 있었다. 그녀는 안전한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오른 쪽에는 확 트인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그 쪽으로 간다면 사내아이들은 과하게 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잡아낼 것이다. 바로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벌레는 수영을 못했다. 강에서 수영은 금지되어 있었다. 강은 말에게 물을 먹이는 곳이었고, 가끔씩 결혼식 같은 행사를 치르기 전에 가벼운 목욕을 하기 위한 곳이었다. 갑자기 불어온 바람이 마치 벌레에게 말을 건네듯 사랑살랑 버드나무 잎사귀를 흔들고 지나갔다. 벌레는 여우처럼 나무를 타고 가지 위로 올라가서 다음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렸다.

사내아이들은 서로를 밀어 제치며 달려와 나무를 에워쌌다. “똥벌레, 똥벌레, 무서워 죽겠지, 똥더미에서 너무 멀리 왔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내려와, 그럼, 우리가 널 집에 데려가서 똥더미를 깊이, 깊이, 깊게 파서 그 속에 널 살짝 눕혀줄게.”

맥주를 꿀꺽꿀꺽 더 마시고, 소리치고 서로를 밀어 짓히며 우왕좌왕이었다. 갑자기 빨강 머리 사내애가 미끄러운 논둑에서 발을 헛디더 강물 속으로 침범 빠졌다.

“맹추, 월, 얼른 이리 나와.” 이빨 빠진 잭이 말했다.

“못하겠어.” 월이 물을 뺏고 허우적거리며 말했다. “잡을 것 좀 던져줘.”

하지만 월이 잠시 물 속으로 가라앉자 술이 확 깨서 겁을 집어먹은 아이들은 가엾은 월이 물에 빠져 죽은 채로 발견되면, 한 발짝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곳으로 도망치느라 야단법석이었다. 그래서 월이 수면 위로 떠올라 여전히 물을 뺏으며 허우적거릴 때는 이미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고 단지 벌레만 나무 위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휘둥그레진 눈으로 월을 바라보고 있었다.

“벌레야, 살려줘. 뭐 좀 던져...”

벌레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무서워.”

월은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고, 벌레는 조심스럽게 늘어진 가지를 타고 천천히 기어가서 그가 어느 썸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푸푸 소리를 내며, 다시 물 위로 떠올랐지만 그녀의 이름을 불러 도움을 청하기에는 입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허우적거리며 벌레를 바라볼 뿐이었다.

벌레는 나뭇가지를 타고 가지 끝으로 더 기어갔다. 그러자 가지는 수면 가까이 더 내려갔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움직였고 월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 드디어 나뭇가지 끝이 거의 수면에 닿을 만큼 내려갔다.

“그걸 잡아, 월.” ~벌레가 외쳤다. 그러자 월은 가지를 움켜쥐었다. 천천히 조금씩 월은 나무를 당겨 잡으면서 올라왔고 그가 매달린 무게와 벌레의 무게 때문에 그 가지는 우지직하고 부러졌고 그들은 둘 다 강둑 위로 나동그라졌다.

월이 가만히 누워있자 벌레는 월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펴보았다. 바로 그때 월이 벌레의 치맛자락에 물을 토해냈고 벌레는 그가 살아났으니 다시 자신을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했다.

“넌 개들이랑 같이 내빼지 않았구나.” ~월은 말했다. “용감하다, 벌레야.”

“아냐, 난 용감하지 않아.” ~벌레는 말했다. “완전히 겁에 질렸는걸. 니가 물에 빠져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까 봐 그런 것뿐이야. 너같이 술에 취해서 멋대로 지껄이는 불량배는 내가 지옥으로 보내줄 수도 있었지만, 그럴 수 없잖아.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줘?”

“배짱 두둑하다, 벌레야.”

“엘리스라구.”

“배짱 두둑해, 엘리스.”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지만, 안 그런 척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엘리스는 꿈을 꾸었다. 교황이 마을에 와서 벌레를 엘리스라고 불렀고, 왕은 산파와 결혼을 했으며 고양이는 웃고 있었다.

## 7. 악마

세상살이가 호락호락하고 공평한 것이었다면 엘리스(이제는 벌레를 엘리스라고 불러야 한다)와 월은 친구가 되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용감무쌍함을 칭찬하고 산파도 치즈와 양파를 푸짐하게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고, 세상은 그냥 그대로였으며 좋아진 것도, 달라진 것도

하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엘리스에게 아무런 관심도 가져주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스보다 덩치가 열 두 배나 큰 그로미트 스미스나 방앗간 남자처럼 심술궂었다. 그로미트는 잭과 와트가 엘리스의 머리카락에 닭똥을 문지를 수 있도록 그녀의 머리 위에 올라앉곤 했고, 방앗간 집 남자는 엘리스가 곡식을 뺏으러 갈 때면 그녀의 엉덩이를 꼬집기도 했다. 그런 반면, 어떤 사람들은 친절하기도 했다. 제빵사의 아내처럼 날씨 좋은 날에는 엘리스에게 안부 인사를 항상 물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빨강 머리 월은 엘리스가 자기를 구해준 뒤로는 돌팔매질도 잘 하지 않았고 가끔은 아이들이 놀리는 짓도 말리곤 했다. “에이, 이 놀이도 싫증난다. 디크의 할머니가 빨래 널고 있어. 우리 거기 가서 빨래 바지 가랑이나 묶어놓자.” 그리고 악마가 마을 주변을 돌아다닐 때까지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사건은 로저 머스타드의 암소인 몰리가 머리 둘 달린 송아지를 낳으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까치가 방앗간 집의 외양간에 들어가 둥지를 틀었지만 아무도 쫓아내지 않았다. 갑자기 온 마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마녀와 악마를 목격했고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살면서 줄곧 어두운 바깥에서 혼자 잠을 잤던 엘리스는 만성절 이브와 발푸르기스의 전야제(5월 1일 전야, 마녀들이 독일의 브로큰 산에 모여 배풍다고 전해지는 술잔치)처럼 무서울 때에도 악마를 본적이 없으므로 밤이라고 해서 무서울 건 하나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오두막집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어두워지면 소식을 전하고 누구를 부르러 가거나 물건을 가지고 오가는 일은 바로 엘리스 몫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훤히 꿰차게 되었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게 되었다.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이 모두 꼼짝 않고 집안에만 있으면서 아무 일도 않았기 때문에 마을은 꽤 조용했고, 덕분에 엘리스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이곳저곳을 거닐면서 생각에 잠기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백발노인 길버트로부터 나무를 깎고 광을 내는 법을 배우고 신부님에게 죄와 악, 그리고 악마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러는 내내 엘리스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러던 어느 안개 낀 가을 아침, 로버트 위버는 이상한 말굽자국을 발견하였다. 그 자국은 마을 주변을 따라 계속 이어져 있었고 갑자기 교회

의 문 앞에서 푹 끊겨있었다. 그는 숲길과 동물들이 다니는 길을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옛더브릿지를 불러 사람들이 자는 사이에 어떤 짐승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지 조사하는 일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

“죽제비였을까요, 토마스?”

“아니오, 녀석은 발굽이 있는 놈이에요. 죽제비는 발가락을 가졌죠.”

“염소일까요, 토마스?”

“아니오, 이 발자국은 염소 치곤 너무 커요.”

“돼지?”

“돼지는 그런 머느리발톱이 없어요.”

“멧돼지일까요, 토마스?”

“그렇게 섬세한 아치모양이요? 멧돼진 절대 아니죠, 로버트.”

“그럼 대체 뭐죠, 토마스? 대체 어떤 동물이 발굽이 있으면서, 염소보단 크고 멧돼지보단 더 섬세하고, 밤중에 우리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교회 문 앞에서 멈춰 서는 걸까요?”

저녁 무렵이 되자 온 마을이 토마스 옛더브릿지조차 밝혀내지 못한 그 정체불명의 동물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단지 선부른 몇 마디 추측이나 걱정 섞인 귀엣말을 했을 뿐인데, 악마가 이 마을에서 최악에 빠뜨릴 영혼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졌다.

다음날 그 이상하고 섬세한 발굽 자국은 디크의 할머니가 사는 오두막과 보리밭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로버트와 토마스는 주기도문을 중얼거리고 있는 신부님과 함께 발굽 자국을 따라갔고 방앗간 문 앞에 이르자, 성호를 그으면서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디크 할머니의 곡식을 제 가방에 주워 담다가 털미를 잡힌 방앗간 남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악마가 진정 이곳에 왔다 갔군요.” 신부가 소리쳤다. “그리곤 방앗간 남자가 도둑질을 하도록 유혹한 겁니다! 하지만 이 도둑을 자비롭게 처리합시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악마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 모두 이에 동의했고, 그래서 악마의 꼬임에 넘어간 방앗간 집 남자는 손이 잘리는 일만은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날 하루 종일 멧돌을 목에 건 채 비를 맞으며 밖에 서있어야 했다.

그 다음날, 마을은 잠잠해졌고, 사람들은 악마가 또 다른 마을을 유혹하려 떠났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지면서 방직공장 집 딸 케이트는 월터 스미스의 헛간으로 나 있는 악마의 발자국을 봤다며 신부

님에게 달려가 그 일을 알렸다. 그 신부님과 용감한 몇몇 사람들은 갈고리와 건초용 갈퀴, 막대기를 엇갈려 묶어서 십자가를 만들고 서둘러 그 헛간으로 갔다. 신부님은 문에 성수를 뿌린 후,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건초 더미에 웅크리고 있던 것은 스미스의 뚱뚱한 딸 그로미트와 영지 내에 사는, 곰보 자국 투성이의 뚱보 청년이었다. 청년은 바지춤을 부여잡고 마구간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그러나 그보다 큰 몸집 탓에 우물쭈물 하던 그로미트는 결국 붙들리고 말았다.

악마의 말을 들은 죄로, 그로미트는 끼니도 거른 채 기도를 하면서 그날 밤을 보내야 했다. 구겨진 자존심 때문인지, 저녁을 굶게 된 때문인지 알 길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할 무렵, 코흘리개 와트는 황급히 길을 뛰어다니며 “내가 악마를 봤어요, 빨 달리고 갈고리 밧톱에, 짝 쓸어버릴 것 같은 무시무시한 꼬리를 가진 털 난 괴물이에요. 악마는 저택으로 가는 길에서 지옥에 데려갈 영혼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 절반은 저택으로 난 길에서 멀찌감치 도망쳤지만 나머지 절반은 신부님과 그의 성수가 그들보다 먼저 갔는지 조심스럽게 살피며 그 길로 재빨리 몰려들었다.

저택으로 가는 길이나 숲속 어디에도 악마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향했는데, 로저 머스타드의 오두막집 근처에서 또 악마의 밧자국을 발견했다. 그 자국은 디크의 할머니 오두막집을 지나 월터 스미스의 헛간 옆을 돌아서, 윌리엄 리브의 오두막집의 문 앞까지 이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이번에도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 한창 뭔가에 열중하고 있는 악마를 발견했다. 안에서는 와트가 윌리엄 리브가 저녁으로 먹을 양고기 다리살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있었다.

신부는 와트의 폭식과 도둑질이 아이의 잘못이 아닌 악마의 잘못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와트는 체면 구기는 일은 면했다. 그러나 그날부터 와트는 윌리엄 리브의 성질 고약한 돼지를 맡아 관리해야 했다.

다음날 아침에는 숲으로 나 있는 밧굽 자국을 추적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다. 숲에서는 이빨 빠진 잭과 그의 친구들이 로저 머스타드의 밧에서부터 수풀을 베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악마가 그들을 게으르게 만들어 놓은 모양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잠에 푹아 떨어져있는 그들을 발견하고는 호되게 매질을 했기 때문이다.

그 후 이틀 동안 악마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마을은 차츰 평온을 되찾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악마에 홀려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안개 낀 날 아침, 악마가 다시 마을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아무도 악마를 잡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은 누가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될지 궁금해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 그래서 산파를 제외한 온 마을 사람들이 그 발굽자국을 따라갔다. 산파는 방금 전에 영주의 저택으로 불러갔고 엘리스는 다른 곳에 있었다.

사람들은 마을 일에 대해 웃고 떠들면서 올드 노스길을 따라 걸었다. 어떤 발을 지나가게 되자 발굽자국을 따라 걸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다. 그 발자국은 커다란 나무 주변에서 멈춰 있었고 사람들도 따라서 멈췄다. 나무 뒤에서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야, 제인, 내 사랑?” 그리고 마이클마스 데이지꽃과 빵 한 바구니를 안고 제빵사가 나무 뒤에서 폴짝 뛰어나왔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제빵사의 아내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그 꽃을 빼앗았고, 사람들은 발길을 돌려 그 곳을 떠났다. 제빵사의 아내가 어디까지가 악마의 소행이고 어디까지가 남편의 소행인지 생각할 수 있게끔 자리를 피해준 것이다.

그 자리를 빠져 나온 사람들이 강을 건넌을 때, 엘리스는 숲에서 걸어 나와 깊고 물살이 빠른 강가로 다가갔다. 그녀는 치마 속에서 뭔가를 꺼내 강물 속에 던지고 나서 사람들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운 좋게 좋았던 산파만 제외하고) 엘리스를 조롱하고 괴롭힌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은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었다. 그 후 악마는 마을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엘리스를 제외한 누구도 그 이유를 알 리 없었다.

며칠 후, 강과 바다가 만나는 어느 마을 강둑에는 이름 모를 짐승의 발굽 모양이 새겨진 두 개의 나무토막이 떠밀려 와있었다. 누구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애니 브로드빔이 그 나무토막을 요리하는 화덕에 땀감으로 던져 넣고 서늘한 가을밤에 뜨끈뜨끈한 토끼 스투를 만들어 먹었다.

## 8. 쌍둥이

그 해 9월에는 태어나는 아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엘리스와 산파는 비누를 만들고 사과주스와 와인을 만들면서 지냈다. 우선, 비누는 거위 기름과 양고기 지방을 솥에 넣고 끓여야 하기 때문에 주변 몇 마일까지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곤 했다. 영지 밖에 있던 로저 머스타드와 강가의 물레 방앗간 남자가 냄새를 맡고 말했다, “누가 오늘 비누를 만드는군.”

다음으로, 사이다와 와인을 만드는 일은 공기 중에 향내를 풍겨서 주변과 멀리 있는 코를 즐겁게 해주곤 했다. 엘리스는 잉글랜드에 있는 린넨을 모조리 빨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비누를 만들고 나자 든든해진 마음으로 사이다와 와인을 끓이기 시작했다.

먼저, 설탕, 몇 가지 재료, 효모 등을 방풍나물과 함께 섞고 그것을 큰 통에 부었다. 발효가 일어나면서 이 혼합물은 크고 맛있는 노래 소리를 내며 와인이 된다. 순무도 똑같은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엘리스는 양쪽 끝에 바구니가 달린 막대기를 매고 고양이와 함께 교회 마당으로 가서 떨어진 과일을 주워 모았다. 거기에는 오직 엘리스를 위해 신이 내려주신 듯 빨강, 노랑, 크고 작고, 달콤하고 시큼하고, 단단하고 맛있는 사과들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 엘리스는 몇 가지 사과의 맛을 보았지만, 아삭아삭하고 하얀 과육의 케케이저즈와 작고 시큼한 폭스웰프스 혹은 부드럽고 달콤한 러스티코트와 루비스트라입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좋은지 가리기는 어려워서, 몇 개를 더 먹어보았다. 한편, 사과가 맛있다는 것을 모르는 고양이는 귀나 꼬리 등이 있는, 사냥해 볼만한 뭐라도 되는 양 땅바닥에 떨어진 조그만 사과들을 이리저리 발로 차고 있었다.

바구니 두 개와 배를 사과로 잔뜩 채우고 오후 늦게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스는 영주의 밭을 가로질렀다. 그 인근에는 마을 사람들이 자갈 채석을 위해 파놓은 구덩이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 소름 끼치는-짐승이거나 마녀 혹은 악마-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엘리스는 성호를 긋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악마는 외쳤다. “여기 좀 봐요, 여기.” ~엘리스는 더 빨리 뛰었다. 그러자 소리는 멈췄다. 그 악마는 월처럼 목소리가 굵었고, 빨강 머리 월은

한때 엘리스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다지 심하게 굴지는 않았다.

“너 악마니 아니면 머리카락 빨간 애니?” ~그녀는 소리쳤다.

“엘리스, 너니?” ~구덩이에서 대답이 들려왔다.

엘리스는 조심조심 구덩이 가장자기로 기어가서 밑을 내려다보았다. 빨강 머리 월이 그의 소와 함께 있었다.

“엘리스, 나 좀 도와줘. 탠시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혼자선 도저히 애를 올라가게 할 수가 없어. 애가 곧 새끼를 낳을 거라서 도통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줘.”

“난 암소 산파가 아니야, 월 러셋,” ~엘리스는 소리쳤다.

“탠시는 니 도움이 필요해, 엘리스, 나도 마찬가지로.”

“정말이지 난 산파가 아니라구, 월 러셋,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

“이리로 내려오면 내가 말해줄게. 탠시가 처음 새끼를 낳는 거야, 내가 아니라구.”

그때 탠시가 고통스럽고 겁에 질린 듯 나지막한 소리로 구슬프게 울었다. 그러자 엘리스는 탠시를 모른 척 내버려둘 수 없었고, 그녀는 사과바구니를 내려놓고 구덩이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월은 배시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잘 왔어, 엘리스. 여기 탠시의 머리를 잡아. 안심하게 해줘. 부드러운 노래를 불러줘.”

“난 노래 같은 거 하나도 몰라, 월 러셋.”

“가사 없이 그냥 흥얼거리기라도 해, 그럼. 그냥 달콤한 소리를 내라구.

“

엘리스와 월 그리고 암소를 빼고는 누구도 그 소리가 달콤하다고 하지 않았겠지만 그녀는 부탁대로 노래를 불렀다. 그러는 동안 고양이는 구덩이 위에서 엘리스가 있던 자리에 누워 발에 난 보드라운 분홍색 털을 조심스럽게 핥고 있었을 것이다.

“소를 잡아, 엘리스. 소 머리와 배를 쓰다듬어줘. 우리가 탠시를 진정시켜주면 그 다음은 하느님이 소와 송아지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 주실 거야.”

월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엘리스는 암소에게 ‘우리 아기, 착한 아기’라고 부르면서 노래하고 쓰다듬었고, 월은 탠시의 배 위에서 손바닥을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암소만큼이나 열심이였다. 그들은 몇 번이나 포



기할 듯도 했지만 그때마다 엘리스는 또 다른 노래를 부르면서 또 한번 더 소를 쓰다듬어 주었으며, 월은 탤시가 소가 아닌 그의 아기라도 되는 양 아꼈고 그래서 몹시 지쳤지만 그들은 계속했다.

마침내, 저녁이 되어 날은 어두워졌고, 송아지 한 마리의 발이 나왔다. 그 다음엔 몇 개 더. 그리고 조금 더 나왔다. “쌍둥이야, 엘리스!” 월이 소리쳤다. “니가 큰 행운을 부른 거야, 탤시가 쌍둥이를 낳고 있잖아!”

정말 그랬다. 끈이어 미끈미끈하고 반짝이는 갓 태어난 송아지 두 마리가 구덩이의 흙 속에 누워있었고, 탤시는 새끼들을 부드럽게 훔으며 코를 비벼댔다.

엘리스와 월이 새끼를 어깨에 들쳐 메고 구덩이에서 재빨리 기어 나오자, 제 새끼도 없는 딱딱하고 어두운 곳에 홀로 남겨지기 싫었는지 탤시도 구덩이를 빠져 나왔다. 월, 엘리스, 새로 태어난 송아지 두 마리, 어미소 탤시, 고양이는 마치 성스러운 행렬처럼 줄을 지어 마을로 돌아왔다.

송아지 한 마리만 기대했다가 그 두 배를 얻게 되자 몹시 기뻐던 월은 그의 행운과 큰 도움을 준 엘리스의 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말하겠다고 약속했고, 엘리스도 기뻐서 온 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다. 사과를 주워오는데 너무 오래 꾸물거린 데다 사과는 물론 바구니까지 통째로 잃어버렸다고 산파에게 분명 혼쭐이 나겠지만, 머리 속이 온통 쌍둥이 송아지 생각으로 가득 찬 엘리스는 두고 온 바구니나 사과즙은 까맣게 잊어버렸고 그 후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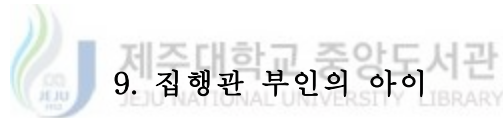
9월이 10월이 되고, 10월이 11월이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엘리스는 차츰 지식과 기술을 쌓아갔다. 자기 일에 정신이 팔린 산파는 이를 눈치 채지 못했다. 그런 자신에게 점점 익숙해진 엘리스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10월이 지나 11월로 접어들면서 만성절 이브에 유령들이 돌아다니자, 그들은 엘리스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가끔 그녀의 도움이나 조언을 얻기 위해 리본이나 달걀, 혹은 치즈나 빵 조각을 주기도 했지만 엘리스는 항상 그것들을 산파에게 주었다. 마치 엘리스가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지만 그 일로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하는 그저 산파의 손이나 팔인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엘리스는 고양이와 늙은 참나무 아래 앉아 빵을 먹으면

서, 텐시의 쌍둥이 송아지 탄생에 대해 다시 얘기했다. “송아지들은 온통 반짝반짝 빛났고 만져보니까 되게 끈적거렸어. 그 송아지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난 개들을 사랑해.” ~그녀의 말은 마치 하나의 노래처럼 들렸고, 그래서 그날 자갈 구덩이 속에서 그랬듯이 엘리스는 가락을 만들었고 그 음에 가사를 넣어 불렀다.

너무도 반짝이는 아기들,  
그리고 만지기는 끈적끈적.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기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렇게 해서 엘리스는 노래하고 노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춥고 어두운 날을 환하게 밝힌 그녀의 노랫소리에 찌르레기는 봄이 온 줄 알고 늙은 참나무 가지에 앉아 노래하기 시작했다.



## 9. 집행관 부인의 아이

“건과가 풍년인 해는 갓난아이도 풍년이란다.” ~잔과는 어떤 해가 될는지 보고 오라고 바구니를 쥐어주며 엘리스를 숲으로 보냈다. 하루 종일 엘리스는 어린 나무를 흔들고, 늙은 나무는 타고 올라가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온전한 열매들을 주워 모았다. 개암, 호두, 밤, 아몬드가 바구니에 가득 쌓여갔고 추운 겨울밤에 먹는 따끈따끈하게 구운 열매를 생각하니 엘리스는 시장기가 돌았다. 그녀의 상상은 거기까지가 끝이었다. 영주의 저택이나, 런던이나 요크의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아몬드 크림, 호두 피클, 밤 소스에 재운 장어 요리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숲에서 돌아오는 길에 엘리스는 사내애들이 고양이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바구니에서 제일 크고 무겁고 딱딱한 열매를 골라 한 움큼 손에 쥐고 아이들을 향해 던졌다.

“고양이를 또 건들기만 해봐.” ~그녀는 소리쳤다. “그러면 쥐 피랑 독사

의 살점이 든 이 병의 뚜껑을 열어서 느이들을 여자로 만들 사탄을 불러 줄 테니까. 그렇게 되면 느이들은 여자처럼 낄낄거리며 웃고, 웃도 여자처럼 입는데다가 애까지 낳게 될걸!”

엘리스는 육하고 화를 내는 자기 모습에 너무 놀란 나머지 무서움이 싹 사라졌다. 사내애들도 그녀가 한방에 쏘아붙이자 어안이 병병해서 움짱 달짝하지 못했다. 그래서 고양이 그르렁은 그곳을 빠져 나올 수 있었고 엘리스도 무사히 산과의 오두막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나이가 꽤 들어서도 어두운 밤이 되면 종종 그 산과의 병이 정말로 자기들을 여자로 만들 수도 있었을 지를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곤 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엘리스의 마법을 시험해보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엘리스가 그토록 맹렬하게 흔들었던 병은 숲에서 견과를 주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드 애나에게 가져갈 블랙베리 강장제일 뿐이었다. 아이들은 끈끈한 보라색 강장제를 뒤집어썩겠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해가 될 것은 없었고 또 여자처럼 아기를 낳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날 밤 집행관의 아내 조안이 산과를 불러오게 했다. 엘리스는 흐릿한 밤안개 속에서 스스 따닥따닥 소리를 내며 타는 등불을 들고 제인이가 가는 길을 비쳤다. 산과는 집행관, 그의 아들, 돼지 두 마리, 비둘기 한 마리를 오두막 밖으로 내쫓았고 엘리스에게도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다. 엘리스는 그날 습한 밤공기 속에서 오랜 시간 꾸벅꾸벅 즐겼다. 여름 하늘이 그렇듯이 이른 아침 하늘이 붉지도, 반기는 빛도 없이 그저 밝은 잿빛으로 물들어갈 무렵, 산과는 밭길질을 해 잠들어있는 엘리스를 깨웠다. “일어나, 벌레야, 오두막에 가서 산동이나물, 썩, 후추 가져오너라. 이런 빌어먹을, 조안은 재치기를 해서 아이를 낳는 수밖에 없겠어!”

엘리스가 병과 약초, 린넨이 가지런히 놓인 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 집행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산과는 마당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안 아줌마가 벌써 재치기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

“참 나!” ~산과는 말했다. “요 녀석이 아예 안 나올 모양이야. 니가 들어가서 조안 얼굴 좀 닦아줘라. 그리고 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오마. 영주 저택의 아그네스 아씨께서 진통이 시작돼서 내가 와줬으면 하는구나. 저택에선 은화로 품삯을 줄 테고, 집행관은 닭과 콩을 줄 거야. 하느

님이 돕고 두 아이도 잘만 거들어주면, 난 그것들 모두 갖는 거야.” ~엘리스는 울기 시작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요, 제인 아주머니.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조안 아줌마를 저렇게 두고 가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엘리스는 따귀를 한 대 철썩 맞더니 조용해졌다. “아무것도 하지마, 이 얼빠진 것 같으니.” ~산파는 침을 뱉 뱉었다. “조안은 저 애 절대 못 낳아. 애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어. 내가 돌아와서 죽은 애를 꺼낼 거야. 내가 가서 아그네스 아씨를 돌보는 동안 넌 조안이 진통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구. 내가 돌아와서 할 일을 하고 두 집에서 모두 품삯을 받아 낼 거야.” ~

엘리스는 소맷부리에 코를 킁하고 풀었지만 코 주위는 여전히 지지분하고 빨갛으며 콧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마.” ~산파는 거듭 말했다. “이런 상태로 라면, 조안은 내가 갔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거야. 손도 까딱하지 말고, 입도 뻥끗하지마.” ~그리고 산파는 길을 내달려서, 벽난로에는 따뜻하게 불이 피워지고 진통하는 산모가 포도주와 시럽을 마시면서 다정한 말로 위로 받고 있는 저택으로 가버렸다. 엘리스는 거의 텅 빈 좁고 어두운 조안의 오두막을 향해 돌아섰고,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스는 처음에 자욱한 연기 때문에 침대에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잠시 후, 침대에서 블록 솟아있는 것이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조안이라는 것을 알았다. 매주 린넨을 빨고 여름에도 맨발로 다니는 모습을 절대로 보이지 않는 그녀는 집행관의 자랑스러운 아내였다. 조안은 끄끙대며 가냘프게 울먹이고 있는, 지푸라기 위에 솟은 작은 언덕 같았다. 엘리스는 눈과 입을 가리며 나가려고 돌아섰다. 그녀는 산파에게 계속 조안과 함께 기다렸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산파의 풀 먹인 머리쓰개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엘리스가 현관 밖에 앉아 있었는지 어쨌는지 누가 알게 될까?

“나 좀 죽게 내버려둬요. 제기랄, 죽게 좀 내버려둬요. 아님 나 좀 죽여 줘요.” ~끙끙대며 맥없이 울고 있던 블록한 언덕이 말을 했다. 광분해서 미친 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의외로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죽음을 애원하고 있었다. 엘리스에게는 그것이 마치 거위가 말을 하고 달걀 혹은 마당의 거름 더미가 말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섭고 이상했다.

“벌레야, 너니?” 조안이 물었다. “산과는 어디 갔지?”

“잠깐 숨돌릴 겸 밖에 나갔을 뿐 이에요, 아줌마. 곧 오실 거예요, 그러면 아기도 태어날 거예요.”

“날 바보 취급하지마, 벌레야. 아기가 걸려서 나올 수 없다는 거 나도 알아. 우리 둘 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지금은 왜 안 되는 거야? 틀림없이 산과의 바구니 속엔 나와 내 아기를 도울 뭔가가 있겠지?”

“쉬이, 아줌마. 아프고 무서워서 아줌마가 그런 말씀하시는 것 뿐 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줌마가 아기랑 같이 죽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어렵도 없죠.”

“젠장, 정말이지, 벌레야, 이렇게 아픈 것보단 나아.” 점잖고 이성적인 조안이 갑자기 다시 끙끙대며 울먹이는 작은 언덕으로 변했다. 그리고 격렬한 고통이 몸을 파고들자, 조안은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고, 팔을 휘두르고 새된 소리를 내지르고, 발길질을 해댔다.

엘리스는 오두막의 현관문에 기대서서 이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려움에 떨면서도 점잖았던 방금 전 조안의 모습이 떠올라 엘리스는 조안을 떠날 수 없었다. 그래서 엘리스는 산과가 여기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아기가 잘 나오지 않고 산모가 비명을 지르며 죽도록 몸을 쿵쾅거릴 때 올 한 해 엘리스가 오두막 창문을 통해서 본 것은 무엇이였을까? 탠시가 도통 나올 것 같지 않던 송아지 두 마리를 낳을 때 월은 그 자갈 구덩이 속에서 무엇을 했던 걸까?

엘리스는 또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조안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따뜻한 맥주에 숙을 넣어 조안에게 먹여주고 ‘우리 아줌마, 착한 아줌마’ 라고 부드럽게 조안을 달랬다. 엘리스는 난로 위에 얹어 따뜻하게 데운 기름을, 탠시에게 했듯이, 조안의 머리와 배에 바르고 문질렀다. 그녀는 주문이나 마법을 몰랐기 때문에 온갖 정성과 예의를 다해 조안을 열심히 보살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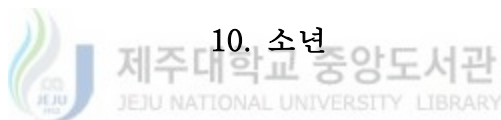
그리고 그날 밤이 깊어, 신부님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자정 기도를 드릴 즈음 영주의 저택으로 축하하러 온 인근 마을 사람들이 소고기와 와인을 한 아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산과는 아그네스 아씨의 첫 아들을 받아냈다. 한편, 차츰 진정되어 침착해진 조안은 산과 견습생의 따뜻한 정성으로, 발이 먼저 나오긴 했지만 아무 탈 없는 건강한 딸을 낳았

고 그녀는 아이에게 엘리스 리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엘리스는 엘리스 리틀을 씻기고 깨끗한 린넨에 감싸서, 집행관의 팔에 안겨주었다. 그때 산파 제인이 오솔길을 바삐 걸어 올라와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다. 제인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을 변명을 몇 마디 늘어 놓더니 품삯을 달라고 딱 하니 손을 내밀었다.

집행관은 말했다. “우린 당신이 필요 없소, 제인. 당신의 견습생이 야무진 손과 훌륭한 지혜로 우릴 보살펴줬소.”

그 말을 들은 엘리스는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엘리스는 다음에 또 웃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엘리스는 산파의 질투어린 노여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집으로 돌아왔고 차가운 스프와 딱딱한 빵을 먹고 난 뒤, 벽난로 옆 지푸라기 침대에서 자면서 엄마 꿈을 꿨지만 일어나자마자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 후, 산파가 일을 하러갈 때면 엘리스는 산모의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서 눈에 띄지 않도록 그림자에 숨어서 산파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일을 즐기게 되었다. 그녀는 산파가 하는 말과 아기에게 하는 것, 아기를 받아내는 방법, 고통을 줄이는 방법 대한 것을 머리와 가슴 속에 잘 새겨 두었다.

엘리스는 달걀껍질에 부추와 당아욱 즙을 가득 넣어 마시게 하면 분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산모의 배에 학의 피를 발라 문지르면 분만이 더 쉬워지며, 태생초 뿌리와 꽃이 힘들어하는 산모의 자궁을 수축을 촉진시켜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중에 아무것도 듣지 않으면 산파가 아기가 나오는 데다 대고 고통을 질렀다. “간난아, 어서 나와라! 하느님이 나오라 신다!” 엘리스는 또한 생쥐 귀와 버드나무가 지혈효과가 있으며 젖이 나오지 않을 때는 아니스(미나리과 식물)와 딜(미나리과 식물)로 만든 차와 쓴 애기풀이 좋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엘리스는 갓난아기들의 입과 요람에 소금을 뿌려주지 않으면 요정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기들을 냉큼 데려가 버린다는 것, 아침에 태어난 아기는 절대 유령을 보지 않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제 스스로 열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엘리스는 약초, 시럽, 마법에 대해서라면 산파가 더 노련하지만 월 러셋도 그에 못지않게 송아지 새끼를 잘 받았고 어미 소에게도 훨씬 더 친절했다고 생각했다. 엘리스는 산파가 필요하다면 제아무리 마법을 부리고 온갖 시럽을 가지고 있어도 제인 샤프보단 차라리 월과 같은 사람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11월의 어느 추운 날, 물기를 머금은 태양이 어슴푸레 이른 아침 하늘을 밝히기 전, 산파의 오두막을 나선 엘리스는 쌍둥이 송아지들을 보고 방풍나물 이파리를 먹이려고 탤시가 있는 외양간으로 바빠 달려갔다. 두 송아지는 이제 이 지역의 성스러운 은자의 이름을 따서 발드레드와 빌프리스라고 부른다. 거기에는 송아지들만큼이나 탤시에게 바짝 붙어서 한 사내아이가 웅크린 채 잠을 자고 있었다. 입술은 퍼렇고 머리카락에는 서리가 앉고 때 투성이의 쨍한 양 볼에는 눈물이 얼어붙어있었다. 엘리스가 들어오는 소리에 잠을 깬 아이는 벌떡 일어섰다.

“이제 가요, 아주머니,” 그는 말했다. “아무 것도 안 가졌어요. 아무 것도 건들지 않았어요. 이제 갈게요.”

엘리스는 꼬마의 팔을 잡았다. “잠깐, 꼬마야. 그래, 너 꽤 끼친 거 없어. 너 누구니?”

“아무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머니. 저 지금 가요.”

“사람들은 모두 소중하고 너두 마찬가지야. 아침 먹을래?”

엘리스는 소에게 먹이러 가져온 방풍나물 이파리와 고양이를 위해 아껴두었던 치즈를 윗옷 소매 안에서 꺼내 굶주린 꼬마에게 주었다.

그녀는 꼬마가 먹는 것을 지켜보았다. 여섯 살쯤 되어 보였다. 체구가 아주 왜소하고 말랐지만 그보다 조금 더 먹었을 지도 모른다. 엘리스는 이제 보니 자신이 그 꼬마와 조금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꼬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고 손을 뻗는 순간, 뿌듯한 마음에 엘리스의 손길이 따듯해졌다.

“다음부턴 요즘처럼 추운 날엔 똥더미 속에 들어가면 훨씬 더 따듯할 거야.” 그녀는 꼬마에게 말했다. “내 말을 믿어봐.”

꼬마는 치즈를 다 먹어치우고 엘리스를 올려다보았다.

“빵은요?”

“빵이라. 내가 가서 좀 가지고 올게. 넌 여기 있어.”

엘리스는 산파의 오두막을 향해 달음질쳐, 고양이를 위해서 숨겨두었던 빵 조각을 찾아내고, 산파가 묻는 말에도, 시키는 말에도 아무런 대꾸도 없이 다시 외양간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꼬마가 엘리스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고, 훨씬 체구가 큰 몇몇 사내애들이 소리를 지르고 건초용 갈고리와 갈퀴로 위협하며 그를 쫓아 달려오고 있었다.

“거지! 도둑! 거렁뱅이!” ~달려오던 꼬마가 엘리스와 짱 부딪혀서 둘 다 땅바닥에 고꾸라지자 아이들이 놀려댔다.

“저리가, 디크.” ~엘리스가 말했다, “안 그럼 느이 할머니가 드시려고 숨겨둔 맥주를 니 놈이 마셨다고 다 이를 거야. 그리고 너, 잭, 이빨 빠진 녀석, 그때 그 쥐 피 내가 지금도 갖고 있다!”

아이들이 뒤로 물러서자, 엘리스는 일어서서, 한 손으로는 치마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다른 한 손으로는 꼬마를 계속 붙들고 있었다.

“분명히 꺼지라고 말했다.” ~엘리스는 그들에게 다가서며 거담 말했다.

“젠장, 비틀. 우린 그냥 채를 골려주고 있던 것뿐이야, 이제 너한테 더 이상 안 그러잖아.”

그 후 아이들은, 또 못살게 굴 사람 어디 없나 해매고 다니다가 어른들에게 들켜 흠씬 두들겨 맞고 일터로 보내졌다.

엘리스가 자신의 이름을 런트라라고 말한 그 꼬마와 산파의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산파는 방직공장 집 딸 케이트를 돌보러 나가고 없었다. 케이트는 젓이 안 나와 곤란해 하고 있었다. 엘리스는 꼬마를 마당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제 치마로 꼬마의 얼굴을 닦고 머리를 빗겨 지푸라기를 털어주었다. 그러는 내내 엘리스는 런트라는 이름은 조그만 돼지에게는 어울릴지 몰라도 것처럼 귀여운 사내아이의 이름은 될 수 없으며, 잘 곳이며 때마다 끼니도 자기가 챙겨주겠지만, 런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도 본적이 없으니까 진짜 이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누나 이름은 뭔데요?” ~꼬마가 물었다.

“엘리스야” ~엘리스가 말했다.

“그러면 나도 엘리스.”

“넌 엘리스가 될 수 없어, 그건 여자이름이거든.”



“그럼 왕의 이름이 뭐야?”

엘리스는 왕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기사 안에 꼬마를 숨겨두고 사람들에게 왕의 이름을 물어보기 위해 마을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롱생크스.” `제빵사가 말했다.

“해머.” `토마스 옛더브릿지가 말했다.

“악마의 화신이지.” `프라이언 테일러가 말했다. 스코트랜드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만도 했다.

“그냥 ‘왕’ 이야.”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에드워드.” `집행관이 말했다. “왕의 이름은 에드워드야.”

“에드워드래.” `엘리스가 꼬마에게 말했다.

“그러면 에드워드가 내 이름이야.” `턴트라고 불리던 에드워드가 말했다. 엘리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 산파가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자 엘리스는 손가락을 침을 빨아서 에드워드의 볼에 붙어붙은 때를 문질러 닦았다. “어서 가.” `그녀는 말했다. “저 길을 따라 영주 저택으로 가. 거기서는 탈곡을 거들 사내애를 구하고 있어. 가서 산파 제인이 너를 보냈다고 하고 아그네스 아씨가 건강한 아들을 낳도록 산파가 도와주지 않았냐고 말해. 가봐 어서.”

에드워드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엘리스의 치맛자락을 손에 짝 움켜쥐었다. 그러나 그녀는 꼬마를 떼어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한번 뒤를 돌아보고 엘리스에게 용감하지만 떨리는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옷매무새를 고치더니 저택을 향해 떠났다.

조금 전 무시당한 것 때문에 노한 산파는 개구리 간 굽기, 달팽이 끓여서 젤리 만들기, 층층나무 장미에서 가지 떼어내기 등 제일 골치 아픈 일들을 엘리스에게 시켰다..

그래도 엘리스는 개의치 않았다. 산파가 시킨 일이 아닌 에드워드의 얼굴과 굽주린 아이의 배를 채워줄, 저택에서 기다리고 있을 풍성한 빵과 치즈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11. 마을을 떠나서

11월의 어느 추운 아침, 엘리스는 빗자루를 만들기 위해 난로가에 앉아 자작나무 잔가지를 묶고 있었는데, 현관문을 탕탕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인이 문을 열자 매튜 블런트가 현관에 서 있었다. 이제 곧 동생이 태어날 참인데 그의 어머니는 엘리스가 와서 도와줬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망할, 엘리스가 누구야?” 산과가 호통을 쳤다.

매튜는 턱짓으로 엘리스를 가리켰다. “저 애요. 아줌마 견습생. 올 엄마가 그러는데요. 조안 이모 곁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엘리스가 애 낳는 걸 도왔다는데요. 그래서 엘리스 말고는 아무도 필요 없는데요.”

“재? 저 똥벌레 말이나?” 산과는 어처구니없다는 듯 몸을 떨었다. “지금, 재한테 부탁하는 거냐, 쥐빨도 모르는 겁쟁이에, 시키는 일도 다 못하고, 그나마 하는 것도 엉망진창인 애한테?” 산과는 엘리스의 따귀를 갈겼다.

“우리 엄마 다른 사람은 싫대요.” 매튜는 거들 말했다.

산과는 미친 개 마냥 사방에 침을 튀기고 따발총처럼 지껄었다. 그녀는 울화통이 치밀어 말까지 더듬으며 쏘아붙였다. “그럼 가보시지, ‘엘리쓰.’ 이런 배은망덕한 것! 도둑질쟁이! 내 빵이나 얻어먹어 먹는 주제에 내 일거리를 훔쳐 가지겠다! 당장 꺼져!”

산과가 요리 냄비를 집어 던지기 시작하자 엘리스와 매튜는 줄행랑을 쳤고 그 길로 아담 블런트의 오두막까지 내달았다. 누군가 자신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사실과 일이 잘 풀릴지 장담할 수 없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엘리스는 순간 깜짝 놀라 밖에서 머뭇거렸고 매튜는 팔꿈치로 그녀를 쿡쿡 찌르며 문으로 떠밀었다. 엘리스는 눈까지 덮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입술을 축인 뒤, 안으로 들어갔다.

오두막도 따뜻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진통으로 에마 블런트의 몸은 더 열이 올라 있었다. 엘리스는 집행관의 부인에게 그랬듯이, 산모의 문지르고 기도하고, 낮은 목소리로 흥얼거리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녀는 나무딸기 잎차와 나래지치 와인을 에마에게 먹였다. 난로에 불을 지피고 창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나서 아기를 세 번 외쳐 불

렸다. 그리고 엘리스는 매튜에게 아기풀 뿌리를 캐오라고 시킨 뒤, 난로 불을 끄고 창문을 모두 열어 젖혔다. 그러나 배속에 아이는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단단히 붙들고 있는 모양인지 좀처럼 나오려 들지 않았다. 세상 밖에 나오려고 기를 쓰는 아이는 어를 수는 있었지만 기를 쓰고 버티는 아이는 엘리스로서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오전이 지나 오후가 되도록 에마는 꼬깃꼬깃 구겨진 린넨 위에서 엎치락뒤치락 몸부림쳤고, 그래도 아기는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엘리스는 산과 제인 없으면,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거나 엘리스나 에마가 곤경에 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윌 러셋이 없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 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침대에서 물러서면서 말했다. “난 못하겠어요.”

엘리스는 에마의 얼굴을 씻기고 그녀의 젖은 머리를 어루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결국 매튜를 시켜 산과를 데려오도록 했다.

아침부터 계속된 진통이 멈추자 에마와 아기는 잠시 숨을 돌렸고, 모든 것이 조용했다. 마침내 비를 예고하는 바람처럼 으르렁거리며 산과가 집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 받을 준비를 시작하면서 산과는 모두에게 비키라고 호통을 쳤다.

산과는 산모에게 욕을 퍼부었다가 얼렀다가, 배를 밀었다가 쿡쿡 찢었다가, 정신없이 몰아세우다가 조심스럽게 어르면서 에마를 치료했다. 옥수수가루와 기름을 바른 손으로 배를 문지르고 주무르고, 당기고 또 당기고,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돌리기를 반복했고 마침내 아이는 나올 수 있게끔 자리를 잡았다. 그때 산과가 불룩하게 솟은 에마의 배를 찰싹 갈기고, 등 뒤에서 에마의 어깨죽지를 잡고 들어 올려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소음과 열기, 핏물로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그 소동 속에서,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 왔고 기진맥진한 산모의 신음소리와 기세등등한 산과의 웃음소리도 함께 들려왔다.

엘리스는 오두막에서 뒷걸음질치더니 돌아서서는 어디로 가는지, 어째서 가는지도 모른 채 오솔길을 따라 큰길을 향해 무턱대고 달렸다. 등 뒤의 오두막에 남은 건 낙담과 실패가 있었다. 산과는 어떤 마법도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순전히 노련한 솜씨로 아기를 받아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엘리스도 할 수 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

했다. 엘리스는 실패한 것이었다. 묘한 기분이 들어 목구멍을 따끔거렸지만 우는 방법을 몰랐기에 울지도 않았고, 가슴이 무겁게 짓눌리는 기분이었으나, 속에 있는 것을 소리 내는 법도 배운 적이 없었기에 잉잉거리거나 투덜거리지도 않았다. 엘리스가 아는 것이라곤 도망가는 것 뿐이었다.

그래서 청명하고 화창한 성 마르틴의 축일 오후, 마을 사람들은 겨우내 먹을 고기를 마련하기 위해 소와 돼지를 잡았고, 메기 밀러는 야식거리로 양고기 선지 푸딩을 끓였으며, 윌 러셋과 덕은 겨울 딸감으로 너도밤나무, 참나무, 물푸레나무, 밤나무를 주워 모았고, 색손 족인 알노트는 영주 저택의 야외 변소를 청소하면서 자기를 영주가 아닌 소작농으로 만든 하느님을 저주하고 있었고, 에드워드는 청어 스프 한 그릇을 먹고 곧 자기가 차지할 저택의 따뜻한 주방 한 귀퉁이를 생각하고 있었으며, 집행관 부인의 동생, 에마는 갓 태어난 아들의 앙증맞은 빨간 코에 뽀뽀를 하고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잠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의 생활은 그렇게 변함없이 계속됐지만 엘리스는 자신이 아는 것과 자신에게 소중했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마을을 떠나 정처 없이 길을 걸었다. 고양이도 그녀와 함께 떠났다.



## 12. 여인숙

고양이는 배가 고팠다. 침을 튀기고 땅바닥을 핥키면서, 제 몸을 짓누르고 있는 엘리스의 몸뚱이를 힘껏 밀어 붙혔고, 마침내 엘리스가 몸을 뒤척이자 그 틈에 기어 나와 맛 좋고 사냥하기 수월한 게 뭐가 있는지 주변 탐색에 나섰다. 고양이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에 갓 엘리스는 일어나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상쾌한 새 날을 맞이하려고 미소를 지으며 기지개를 펴려는 순간, 불현듯 엘리스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어제 오후, 그녀는 실패자가 되어서, 도망을 쳤던 것이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엘리스는 비속에서 홀로 밤을 맞았다. 그녀는 물에 흠뻑 젖은 공처럼 다시 몸을 동그랗게 웅크렸다.

“난 쓸모없는 애야.”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난 가진 것도

하나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머물 집도 없어. 난 완전히 구제불능 바보라서 산과 견습생도 될 수가 없고, 이젠 지쳐서 더 이상 견을 수도 없어. 그냥 여기 누워서 비 맞다가 죽는 수 밖에 없어.” 그리고는 꿈꿀 새도 없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쌀쌀한 아침이면 지붕이 있는 집과 따듯한 음식에 익숙해져 버린 그녀의 어린 몸뚱이는 옥신옥신 쑺시는 듯한 고통에 잠에서 깨야 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녀도 여전히 집 없는 실패자였다. 엘리스는 일어서서 머리카락에 묻은 이파리들을 떼어냈고 흘러내리는 코를 소맷부리로 쓱 닦아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기가 어디인지 엘리스는 알고 있었다. 등 뒤로는 마을, 예마, 산과 그리고 실패가 있고-그녀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비를 맞으며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엘리스는 너무 추웠고 배가 고팠으며 불편했고 아직은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걸었다. 고양이도 엘리스를 바짝 쫓아갔다. 배 속은 비고 받은 비에 젖었지만, 고양이는 그녀가 혼자 걷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다.

한 시간쯤 걸어가자, 마을에서 뻗어나온 길과 바다로 가는 길이 만나는 갈림길이 나타났다. 바로 거기서 엘리스는 11월의 새벽에 내리는 빗방울 사이로 불빛 한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여인숙이었다. 엘리스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인숙은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었다. 엘리스는 돈이 없었지만 튼튼한 두 손이 있었고 주린 배도 채워야 했기에, 여인숙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으며 그 대가로 잠자리와 빵을 얻었고 이제는 비를 맞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려고 쥐들이 보리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이 먹고 있는 치즈를 축내면서 제 몫을 툭툭히 했다.

여인숙은 널찍한 주방 위에 방 하나, 마구간 위에 다락 하나, 홀에는 위든 아래든 잠자기에 알맞은 탁자 몇 개뿐인 그야말로 커다란 돌 오두막집에 지나지 않았다. 여인숙 주인은 앞을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존 다르크(Dark)라고 불렸다. 하지만 그다지 눈이 먼 것도 아니어서 탁자 위에 놓인 마시다 만 맥주를 못보고 지나친다던가, 옆에 지나가는 통통한 엉덩이를 꼬집지 않고 지나치는 법은 결코 없었다. 여인숙의 일은 대부분 존의 아내 몫이었다. 둥글둥글한 생김새에 피부가 밟그레한 제닛은 한 손으로는 닭고기를 썰고, 다른 한 손으로는 크림으로 버터를 만드는 동시에

소란 피우는 손님의 먹살을 쥐고 문 밖으로 내쫓을 수도 있었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제닛은 옆에 있는 앨리스에게 말했다. “네가 너무나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니 얼마동안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어.” 앨리스는 갈 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머물게 되었고, 강가의 모래로 테이블의 얼룩을 문질러 닦는 일이든, 과이를 만들기 위해 장어 가죽을 벗기는 일이든 멍청한 자기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 감사했다.

앨리스는 열심히 일했고 콩과 빵, 그리고 제닛이 주는 질이 좀 떨어지는 맥주를 주로 마셨다. 매주, 가을은 점점 춥고 습해졌으며 비록 더럽고 외풍도 심했지만 여인숙은 헛간이나 바깥에 있는 거름 더미보다도 훨씬 아늑했기 때문에 앨리스는 마음은 공허하지만 그곳에 계속 머물렀다. 그녀는 마을에서 지냈던 몇 달 동안의 시간, 윌 러셋, 집행관의 아내 조안 그리고 산파에 대한 생각을 애써 지우려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다시 목구멍이 따끔거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끔 쓰레기냄새나 사과 굶는 냄새는 마을의 기억을 너무도 생생히 되살아나게 했던 탓에 앨리스는 재빨리 위쪽을 바라보았고 두 눈은 희망 반, 두려움 반으로 깜박이곤 했다. 가끔 앨리스는 영주의 저택으로 보낸 에드워드를 생각하기도 했다. 그의 안부가 궁금하기도 했고 저택으로 보낸 것이 잘 할 것인지 궁금하기도 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여인숙은 고향으로 떠나거나 돌아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앨리스는 호랑가시나무와 담쟁이 넝쿨을 홀에 있는 검댕으로 그은 가로대에 걸었다. 리백, 기타, 색버트 연주자들이 술을 마시러 여인숙으로 몰려들었고 그곳에 머물며 연주를 하였다. 커다란 꼬치에 췌 오리와 거위고기는 이글거리는 불 위에서 뒤집히며 노릇노릇 맛있게 골고루 구워졌고, 그 구수한 냄새를 맡고 마구간에 있던 그르렁과 쥐들까지 한 입 먹을 수 있을까 싶어 안으로 기어들어 왔다. 모든 것이 생기 넘치고 따뜻했지만 앨리스는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다. 무거운 마음과 초점 없는 눈빛, 개암나무 열매처럼 앙 다문 입을 하고, 마치 마구간을 청소하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면서, 같은 말만 계속 중얼거렸다. “난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 가진 것도 하나 없고, 내 집도 없어.”

1월이 되자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고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물들어 내내 그 모습 그대로였고, 앨리스도 마찬가지였다. 잿빛 1월이 검은빛 2월이 되기 직전, 벽난로 옆 탁자에, 갈색코트를 걸친 비쩍 마르고 구부정한 등

허리가 앨리스의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난로 옆, 똑같은 탁자에, 똑같이 구부정한 자세로, 똑같이 갈색 코트를 입은 등허리를 봤음을 깨달았다.

앨리스는 그 남자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녀를 지켜보면서 무엇이 저리도 어린 아이를 그토록 시들게 했나 궁금해 하고 있다는 걸 미처 모르고 있었다. 그 남자는 왜가리처럼 키가 크고 뼈만 앙상했으며, 검은 두 눈동자는 슬프고 상냥하고, 배고프고, 추워 보였다. 처음엔 그 남자가 천연두에 걸렸다고 생각했다. 그의 길쭉한 얼굴과 기다란 코, 길고 누런 치아는 온통 얼룩 투성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것은 깃대 펜으로 맹렬히 글을 쓰면서 튀 잉크일 뿐이었다. 맵소사, 그녀는 생각했다. 그는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글을 쓸 줄 아는 남자다! 앨리스는 그에게 빵과 맥주를 가져갈 때면 눈을 아래로 내리 깔고, 감히 같은 공기를 들이 마시지도 못했다. 자신은 너무 멍청해서 산과의 견습생도 될 수 없는 위인이었던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커다란 암탤지가 새끼 일곱 마리를 낳는 것을 지켜보던 제닛은 앨리스에게 갈색 코트를 입은 남자에 대해 얘기해주었다. 매지스터 리스, 사람들은 그를 저명한 학자라고 말했다. 그는 여인숙에서 겨울을 나면서 장부를 정리해주고, 여인숙 손님들을 위해 편지를 대신 써 주면서 방값과 식사비를 해결하고 있었다. 여기 머무는 동안 위대하고 성스러운 것이라고 소문난 그 책의 집필을 마친다고 한다.

그 남자를 자세히 관찰한 결과, 앨리스는 몇 가지 사실을 알아냈다. 매지스터는 자기 맥주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존 다르크는 그 남자 옆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 제닛은 매지스터에게는 반드시 음식을 가장 적게 주거나 가장 질긴 고기를 주도록 했다. 그는 주면 주는 대로 먹었고 절대 불평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 발길에 차여 머리가 좀 이상해진 부엌 떼기 탐에게도 절대 야단치지 않았다. 그 아이가 그의 종이에 맥주나 베이컨 기름을 쏟았을 때도 마찬가지로였다. 오로지 거위만이 그를 멀리하는 것 같았다. 그가 여인숙 마당에 들어서면 또 다른 꼬리 깃털이 깃대 펜에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리들은 허둥지둥 뿔뿔이 흩어졌다.

앨리스는 그 남자가 앉는 바닥 귀퉁이를 더 정성껏 쓸고 그가 쓰는 탁자의 끝을 더 자주 닦게 되었다. 마침내 암담한 절망에 빠져 있던 앨리

스가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엘리스는 매지스터 리스가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얼마 후, 그는 엘리스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빗자루를 더욱 짹 움켜쥐고 입을 꼭 다문 채 바닥만 쓰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매지스터는 그녀의 고양이에게 말을 하게 되었다.

“이건 말이야, 야옹아.” ~펼쳐진 책 위에서 자고 있던 고양이를 치우면서 그가 말했다. “나의 대작, 백과사전의 요약편이란다. ‘세계의 모든 지식을 망라한 우주의 거대한 거울, 매지스터 리처드 리스 석사 몸소 수집, 이 책을 덕이 넘치시는 체스터의 주교님께 바친다.’ ~그 분은 세상의 풍성한 모든 덕을 갖추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아니면 “끓인 오배자와 숯 검댕을 섞어서 어떻게 하면 잉크를 더 검게 만드는 지 잘 봐라.” ~때론 “고양아, 이건 P라는 건데 puss(그르렁), pork(돼지고기), plum pudding(자두 푸딩)에 들어가는 알파벳이란다.” ~또, “S는 그냥 그렇게 쓰면 돼지. 두껍지도 꼬불꼬불 하지도 않고 끝에 또 다시 꺾지 않고, 그냥 그렇게 쓴단다.”

고양이는 가끔 매지스터의 개인 지도에 참을성을 잃고, 감질나게 움직이는 펜을 물려고 달려들긴 했지만 대체로 암전히 잘 들어주었다. 그리고 고양이가 배울 때 자기도 몇 글자 배우기 위해서 엘리스도 열심히 들었다. 그녀는 O, D, G가 다정하게 생겨서 제일 좋았다. Z는 비열한 것 같고, X는 사악해 보였고 W는 볼 때마다 하품이 났다. Q가 제일 아름다워 보였다. 마치 홀로 설 수 없어서 어디든지 반드시 불만에 가득 찬 U와 같이 다니는 것 같았다.

고양이는 가끔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야식거리를 찾아 어슬렁거릴 필요가 없는 밤에는 엘리스가 잠자리에 들면서 제 몸을 꼭 끌어안고서 그녀가 그 날 배운 것을 더 얘기하도록 내버려두었다. A가 Alyce(엘리스), apple(사과), ark(방주)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S에서 꼬리를 언제 넣는지, 그르렁(Purr)을 쓸 때는 어떤 글자가 사용되는지 자기처럼 고양이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무엇을 끓일 일도, 바닥을 쓸 일도, 칼질을 할 일도, 가죽을 벗길 일도 없는 날이면 엘리스는 장작더미에 내린 서리 위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썼고, 굴뚝의 시커먼 벽에 대나무 빗자루 손잡이로 글자를 새겨 넣었으며, 양고기 스프에 손가락을 푹 넣었다가 주방 탁자 위에 글자를 썼다. 밤에는 맑고 추운 하늘에 빛나는 별들 속에



서 글자를 찾아내곤 했다.

알파벳을 다 배우고 많은 조합도 터득하게 되자 매지스터 리스는 그의 훌륭한 백과사전에 나오는 몇 가지 지식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고양이에게 단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덕분에 엘리스는 텅 빈 투명한 천체 속에서 지구의 둘레를 도는 하늘에 떠있는 행성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한때는 영국까지도 뻗어나갔던 위대한 로마 제국, 똑바로 서서 걷고 금광을 캐는 거대한 개미가 사는 머나먼 섬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다. 그녀는 몸을 지배하는 네 가지 체액에 대해서도 배우고 달빛 아래서 옥수수를 심는 방법, 지구의 한 지점과 그것의 정반대 편 지점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여전히 그는 그녀에게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매지스터가 잉크 자국으로 망친 페이지를 버리자 엘리스는 그 뻗뻗한 송아지 피지를 째짜게 낚아채서 조끼 속에 쑤셔넣었다. 매일 밤 마지막 촛불을 불어 끄기 전에, 엘리스는 알파벳 하나하나, 가끔은 익숙한 단어도 꼼꼼히 헤아려가며 그 페이지를 열심히 읽었다.

소나기가 잦았던 어느날 오후, 빗방울이 이슬 요정처럼 푸른 잎새 위에 통통거리며 떨어질 때 매지스터는 물을 탄 썩쓰름한 맥주를 한 잔 마시며 꿈꾸듯 앉아 있었다. 겨울이 얼추 지났지만, 그가 쓰는 책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매지스터 리스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뭘까?” 그는 자문해보았다. 그는 자기 쪽으로 비질을 하면서 다가오는 엘리스를 엿보고 있다가 그녀에게 물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그리고 나서 날카롭게 물었다. “그럼 여인숙 아가씨, 당신은 무엇을 원하오?”

엘리스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녀는 계속해서 비질만 할 작정이었지만, 그가 직접 엘리스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충격도 그녀의 호기심 앞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녀는 무엇을 원했을까? 그런 질문은 처음 받아보았기에 그녀는 매우 진지했다. 여인숙 일꾼, 엘리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엘리스는 머리카락 한 타래를 잘근잘근 씹으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을까? 블랙베리 파이? 새 신발? 아늑한 오두막 아니면 조그만 땅 떼기?

비 오는 그 날 오후, 그녀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고, 마침내 매지스터 리스에게 차가운 소고기와 저녁 식사 빵을 내가면서 목을 한두 번 가다듬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겠어요. 배부르게 먹고, 마음 편하고, 내가 머물 집이요.”

놀란 매지스너 리스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인숙 아가씨 치곤 원하는 게 많군요. 난 당신이 애인이나 당신의 검은 머리에 꽃을 노란 리본을 말하리라고 생각했소.”

“아니에요, 제가 말한 대로예요, 하지만 굶주리고, 맨 날 울상에, 산과의 견습생도 못할 정도로 우둔한 게 나의 기구한 운명이죠.”

“아니오, 절대 명칭하지 않소.” 그는 말했다. “고양이는 물론, 당신도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엘리스는 웃었다. 그리고 그렇게 겨울은 지나 봄이 왔다.

### 13. 손님

제닛은 엘리스가 펴 맘에 들었다. 이 아이는 음식을 훔치지도, 맥주를 슬쩍하지도, 손님들과 장난치며 놀지도 않았다. 그녀는 힘이 세고, 자발적이며, 같이 있기 편한 아이였다. 시킨 일을 두 번 묻지 않고 해 널만한 상식이 충분한 아이였다. 그래서 엘리스는 봄철 내내 불을 지피고 바닥을 쓸고 물을 길어 날랐다.

그녀는 빵에 효모를 과다하게 넣는 법과 술잔을 무겁게 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래서 엘리스가 내가는 빵과 술 대부분이 공기나 쇠덩어리일 정도였다. 엘리스는 정체불명의 불쌍한 야생동물을 스투에 넣어 끓이고 손님들에게는 소고기나 토끼라고 말했다. 귀한 손님이라도 들어올라 치면 제닛은 하나뿐인 큰 침대에 깨끗한 시트를 깔라고 큰소리로 엘리스를 부르곤 했지만, 엘리스는 정말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 말을 들은 손님들만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던 것이다.

“제길.” 제닛은 말하곤 했다. “나는 가진 것이라곤 이 쓰러져가는 여인숙과 돌봐야 할 눈먼 남편 밖에 없는 불쌍한 여자일 뿐이야. 분명 하느님은 내 이 보잘 것 없는 살림살이를 시샘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제닛이 그것으로도 근근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둥글둥글하고 낙관적이고 쾌활한 성품을 가졌으며 그와 더불어 모든 손님들에

게 똑같이 속임수를 쓴다는 점에서 아주 공평했기 때문이다.

5월이 되면서 봄이 절정에 이르러 나무들이 온통 꽃으로 물들 즈음 매지스터 리스는 몇 개월 더 머물기로 결정했다. 그 무렵 한 잘생긴 남자가 여인숙을 찾아왔다. 그자가 너무 근엄하게 굴자 앨리스는 틀림없이 그가 기사계급 아니면 영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영주의 목수가 부리는 조수일 뿐이었다. 앨리스는 그의 행동과 말을 예의 주시했고 마침내 그에게 양고기 파이를 내갈 때 용기를 내어 물었다. “에드워드라는 꼬마있죠, 탈곡 일을 하러 영지로 간 꼬마요. 혹시 그 애를 아세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금시초문이요.”

“조그만 남자아이예요. 나이는 일곱 살 정도고, 그 나이치고는 아주 작고 몸집이 왜소해요.”

“본적 없다니깐요. 아마 도망을 갔거나 죽었거나 염소가 잡아 먹었을 거요.” 목수의 근엄한 조수는 하얀 이빨 사이에 양고기가 낀 채 배시시 웃었다.

앨리스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가 에드워드를 도울 수도 없을 만큼 멍청했던 말인가? 에드워드는 그녀가 믿어온 대로, 안전하게 저택에 있던 게 아니라 어딘지도 모르는 위험하고 있어선 안 될 곳에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저 점잖게 생긴 젊은 남자가 조그만 아이까지 굳이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일까?

그러던 어느 날,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정도로 꽤 이른 여름이 찾아왔을 때, 또 다른 손님이 왔다. 앨리스가 이제 막 맥주에 물 타는 일을 마치고 파이 크러스트 반죽에 톱밥을 넣어 주물거리고 있을 때, 여인숙 길목에서 수레가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 한 짐이 주방으로 옮겨지고 있었는데 수레 뒤에 걸어오는 사람은 바로 마을에 사는 빨강 머리 위 러셋이었다.

앨리스는 순간 자기가 더 이상 산과의 견습생이 아니고 지금은 실패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밀가루 범벅이 된 손을 치마에 닦으면서 밖으로 뛰어 나갔다.

“윙! 윙 러셋! 나야, 앨리스.”

“앨리스.” 윙이 외쳤다. “우린 니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잘 지내는지 궁금해 하고 있었어. 여기서 뭐하는 거니?”

순간, 환하게 빛나던 앨리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토끼 가죽을 벗기고 바닥을 쓸고 변소 청소를 하고 있어. 여인숙에서 일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인숙에서 일하는 여자 아이 중에 네가 제일 예쁘다.” 월이 말했다. “얼굴에 묻은 밀가루랑 먼지만 닦으면 아마 그럴걸. 수레에서 나무를 내리는 동안 와서 나랑 얘기해.”

앨리스는 손가락에 침을 뱉어서 얼굴을 문질러 보았지만 오히려 얼굴과 손 모두 더러워지기만 했다. 그래서 닦는 일은 단념하고 월을 따라 장작 더미로 갔다. 그곳에서 앉아 월이 들려주는 마을 소식을 들었다. 앨리스 리틀은 토실토실하고 귀엽고 이빨도 세 개가 났다. 제빵사의 아내는 남편이 오븐 옆에서 꼼짝 못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었다. 그로미트 스미스는 영주 저택의 부집사인 알돈 피그트리와 결혼했고, 그녀를 “피그트리 부인, 내 사랑” 이라고 부르는 그 소심한 사내는 파리 죽이듯 찰싹 매를 맞을까 무서워서 부인을 피해 다닌다고 한다.

“넌 어떻게 지냈니, 앨리스? 마을 애깃거리가 바닥나자 월이 화제를 돌렸다. “왜 도망친거니?”

앨리스는 어떻게 말을 할까 궁리해 보았다. - “그 마을은 나와 맞지 않아” - 아니면 “산과 아주머니는 인색하고 욕심도 많은데다가 너무 쌀쌀맞아” - 혹은 “내가 아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 그러나 막상 입을 떼는 순간 튀어 나온 말은 엠마 블런트의 아이를 받아내지 못했던 실패담과 산과의 견습생이 되기엔 자기가 너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였다.

“나 참, 앨리스. 난 니가 탤시에게 하는 걸 봤어. 너는 배짱도 있고 상식적인 것도 알고 있잖아. 전부를 모른다는 건 니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야. 산과 제인도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 월은 새로 돌은 풀잎처럼 푸른 눈으로 여름하늘처럼 상냥하게 윙크를 해보였다. 갑자기 부끄러워진 앨리스는 여인숙 안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고, 그 날의 만남은 그렇게 끝났다. 그렇지만 앨리스는 그 후 몇 주 동안 그 때 일을 두고두고 마음 속에 떠올렸다.

그 달이 가기 전에 또 다른 낯익은 얼굴이 여인숙에 나타났다. 앨리스가 소스를 만들 애기괭이밥을 구해서 여인숙으로 돌아온 어느 날이었다. 여인숙에는 산과, 제인 샤프가 풀 먹인 머리쓰개에, 그녀의 두 번째로 좋은 겂옷을 걸치고 탁자에 앉아 매지스터 리스와 한창 대화를 나누고 있었

다.

엘리스의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다가 이내 일월의 맨발처럼 차디차게 얼어붙었다. 산파가 매지스터 리스에게 그녀의 어리석음, 무능력함, 실패담을 늘어놓는 상상을 하자 목구멍이 따끔거리고 눈이 시려 왔다. 달아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달아나. 그러나 엘리스가 느낀 것은 수치심보다는 호기심 쪽이었다.- 그녀의 최악의 얘기만은 매지스터 리스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들키지 않고 엇들을 수 있게끔 그림자에 숨어 있었다.

제닛은 엘리스를 꼬집으면서 그녀의 손에 맥주잔을 들이밀었다. 그래서 엘리스는 될 수 있는 한 천천히 살금살금 탁자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는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다. “또 그 여자한테 셀 비어 차도 끓여 먹었지요. 자궁이 미끄러워서 유산하기 쉬운 여자한테는 그만한 게 없어요.”

제인 샤프는 엘리스가 아닌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었다. 엘리스는 그걸 알았어야 했다- 그리고 매지스터 리스는 산파의 말을 위대한 백과사전에 모조리 받아 적고 있었고 고양이는 치즈와 빵을 씹고 있었다.

제인은 계속했다.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올 땐 검은 오리나무 껍질과 검게 그을린 호밀을 써서 지혈하면 되지요, 하지만 그보다 루비를 몸에 지니거나 가루로 뿜아서 따듯한 와인에 섞어 마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산모가 운이 좋아서 루비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걸 갈아서 쓸 정도로 부유하다면……”

엘리스가 산파의 빈 술잔을 다시 채울 때에도 산파는 그녀를 알아채지 못했다. 엘리스는 다시 그림자로 숨었다. “월 러셋.” 그녀는 산파가 매지스터 리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마을에 사는 한 사내애가 내 견습생이 이 여인숙에 묵고 있다고 말해주더군요. 도망을 갔으니, 말하자면, 전 견습생이군. 여기서 본 적이 있나요? 검은 색 곱슬머리와 크고 슬픈 눈을 가졌고, 겁쟁이라서 경멸하는 소리도 못하는 깡마른 계집애말이에요.”

매지스터 리스가 봤다 안 봤다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산파는 얘기를 계속 했다. “내가 여태 부려본 애들마냥 얼빠진 아인 아니었어요, 더 나으면 나왔지. 그래도 그 앤 떠나길 잘했어요. 내가 필요했던 아인 아니었으니까요.”

“실패했으니까.” ~앨리스는 그림자에 숨어 중얼거렸다.

“그 앤 포기해 버렸어요.” ~잔과는 계속했다. “시키는 일 잘하고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고, 시도해보기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견습생이 필요했거든요. 산과가 포기한다고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는 걸 멈추지는 않죠.” ~잔과는 잠깐 동안 매지스터 리스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맥주를 단숨에 비우고는 여인숙을 나가버렸다.

#### 14. 영주의 저택

여인숙에서 뺀어 나온 길이 꺾여 마을로 접어들기 직전에 영지의 저택으로 통하는 인적이 드문 길이 하나 있다. 저택으로 가는 사람들은 성문루를 통과해 사과나무와 마구간을 지나는 큰 길을 이용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작은 길을 알기도 했지만 어두컴컴한 숲과 너무 가까워서 그 길로 다니는 일은 거의 없었다. 앨리스는 마을 안팎으로 왕래할 때면 그 길로 다녔었다. 하지만 전에는 그 길을 따라 저택까지 걸어갈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어느 날 오후의 일이었다. 금빛 노란 꽃이 금련화 나뭇가지에 첫 꽃망울을 터뜨리고 암소 거뜠이 처음으로 귀여운 송아지를 낳은 그 날, 앨리스는 끈적이는 송아지가 마을 교회 근처에 있는 장미울타리처럼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로즈버드라는 이름을 붙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거뜠이 로즈버드에게 코를 문지르고 젖을 먹이며 따듯한 제 몸에 새끼를 바짝 붙여 온기를 전해주는 모습을 보고 앨리스는 영주의 저택으로 간 에드워드가가 그곳에 있기는 한 건지 끼니는 거르지 않는지 옷은 잘 말려 입는지 마음 편히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다. 아마도 그는 불행해서 앨리스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녀는 에드워드를 여인숙으로 데리고 와 거뜠이 로즈버드에게 하듯 그를 보살펴줄 것이다. 이런 생각에 잠긴 며칠동안 앨리스는 생각하면 할수록 꼭 그래야 할 것처럼 생각되었다.

앨리스는 에드워드가가 저택에서 그녀를 처음 목격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았다. “앨리스 누나, 나 잊지 않았구나.” ~에드워드는 앨리스의 허리에 팔

을 감으면서 외칠 것이다. “나 데려가려구 온 거지?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누나가 없으니까 외롭구, 여기서 밥도 안 주고 때리고 나를 눈 내리는 바깥에서 재우고, 날 아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앨리스는 에드워드를 팔에 안아 올려 함께 여인숙으로 돌아와서 그를 보살펴 주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녀도 마음이 놓일 것이다.

앨리스가 원했던 것은 에드워드 뿐이었고 모두 잘 될 것이다. 앨리스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제닛이 구리솥, 새끼 돼지, 그녀가 최고로 치는 윗옷에 달 레이스를 사기 위해 에텐워에서 열리는 시장에 나가고, 매지스터 리스 말고는 식당 손님이 없을 때를 틈타 고양이를 마구간에 들여놓고 쫓아올 수 없게 한 뒤, 그녀의 언 마음을 따듯하게 녹여주는 햇살을 맞으며 흐릿한 초록빛 언덕 위에 있는 영주의 저택을 향해 걸었다.

마을의 들판을 지나던 앨리스는 낮질을 하며 김을 때는 로저 머스타드와 말더듬이 토마스를 보자 가슴과 목구멍에 다시 따끔거리는 느낌이 되살아났지만, 시선을 돌려 그녀가 한때 가졌던 것과 이제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억을 떨쳐버리고 애썼다.

영주의 저택은 햇빛 아래서 아주 떠들썩했다. 앨리스는 우선 헛간으로 갔다. 여름에 건초를 벨 때 쓰기 위해 남자들이 팽이와 낫을 미리 갈아두고 있었다. “에드워드 있나요?” ~그녀는 빨간 코의 키 큰 사내에게 물었다. “추수철이 지나서 탈곡 일을 하러 여기 온 아인데, 아직 여기에 있어요?”

그 사내는 고개를 돌려 앨리스를 바라보았다. “에드워드일랑 잊어버려, 곱슬머리 아가씨. 내 이름은 매트야. 난 그 녀석보다 여섯 배는 더 크지. 이 건초 더미로 올라와서 나한테 후끈하게 찢한 뽀뽀나 해봐.”

“내 머리카락은 꼬불꼬불 한지 몰라도 머리 속은 멀쩡하거든요.” ~앨리스가 받아쳤다. “찢한 뽀뽀는 댁의 부인이나 암소를 위해서 아껴두시죠.”

앨리스는 헛간을 나와 대장간 옆으로 갔다. 영주의 대장장이와 견습생들이 쇠덩어리에 망치질을 하면서 말발굽을 만들고 있었다. “에드워드가 어딴죠?” ~그녀는 다시 물었다. 낫선 여자아이의 물음에 신경 쓰기엔 남자들이 너무 기분이 언짢아 있었거나 바쁘거나 아니면 너무 피곤했는지 대답으로 돌아온 것은 무례한 말, 웃음, 쪽쪽대는 소리였다.

“에드워드가 어딴죠?” ~앨리스는 저택 마당에서 돼지가죽을 벗기고 있는

주방 하녀, 여러 개의 솥에 비누를 만들 거위 기름을 끓이고 있는 세탁 하녀, 그날 아침에 죽은 올드 네드의 관을 짜고 있는 목수들에게도 물었다. 누구 하나 대답해주지 않았다. “젠장” 헬리스는 말했다. “차라리 담장에다 대고 물어보는 게 낫겠다.”

마침내 주방으로 쓰이는 헛간을 찾아 들어간 헬리스는 듣는 사람도 없이 혼자 내뱉는 말씨를 보아 헬리스와 말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한 요리사를 발견했다.

“제발, 여사님.” 헬리스는 말했다. 부탁을 할 때는 ‘여사님’이나 ‘선생님’ 라는 존칭이 요리사나 어린 마부들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다. “제발, 여사님, 에드워드라는 꼬마가 추수가 끝나고 탈곡을 도우러 여기 왔는데, 아직 여기 있어요? 본적 없으세요?”

“아, 그 꼬마 녀석.” 요리사는 헬리스에게 국자를 흔들며 보이며 상냥하게 말했다. “그 꼬마 말이지. 여기 있단다. 헌데 녀석이 몸집이 너무 작아서 크고 무거운 도리깨를 내려치지도 못하고, 황소나 쟁기를 당해낼 재간도 없고, 남자 하인들의 조롱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단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내가 이 조그만 새끼 오릴 보살피고, 녀석이 할만한 간단한 일을 시킨단다.” 감정에 복받치기도 하였거니와 주위에서 음식이 펄펄 끓거나 약한 불로 데워지는 열기 때문에 얼굴이 별정계 달아오른 요리사는 앉아서 커다란 가죽신발을 벗더니 그것으로 얼굴에 부채를 부쳤다. 그녀는 헬리스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올커니, 그러니까 니가 그 꼬마가 말하던 누나구나, 꼭 빼 닮았어. 영락없는 쌍둥이야.” 요리사는 중얼거리며 성호를 그었다. “느이들 쌍둥이 아니지?” 그녀는 헬리스를 더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난 쌍둥이는 참을 수 없어.”

“아니에요, 여사님. 우린 오누이 사이도 아닌걸요.”

“아유, 그런 말마라, 아가야, 느이들은 국화빵이야.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고 해.”

“예, 여사님. 쌍둥이 아니에요.” 헬리스는 거듭 말했다. 그리고 발드레드와 빌프리스 같은 쌍둥이 소가 태어나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 없는데 왜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나면 불운하고 재수가 없는 건지 의아해 했다.

“자, 그러면, 귀여운 아가, 헛간 뒤에 계사에 가서 니 동생을 찾아보렴. 파슬리 오믈렛에 넣게 계란을 가져오라고 보냈거든. 꼬마랑 같이 오면, 빵과 베이컨으로 저녁을 차려주마.” 요리사는 별정계 달아오른 젖은 얼굴



을 치마로 닦아내고 스프가 끓고 있는 커다란 솥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파리를 끄집어냈다. 그리고 다시 혼자만의 대화를 시작했다. 요리사는 그것을 재미있어 했고 자기가 하는 말들이 거의 틀리지 않다고 믿고 있었다.

## 15. 에드워드

저녁 식사를 하고 야식을 먹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서 저택 차츰 고요해졌다. 엘리스는 김매는 낫, 팽이, 갈퀴를 지친 어깨에 둘러메고 들판에서 돌아오는 남자들을 지나쳤다. 젖을 짜는 아낙들은 교유기를 씻고 가끔씩 일을 멈추고 손에 묻은 달콤한 버터를 빨아먹기도 했다. 내일 양을 씻기고 털을 깎기 위해 양치기들이 양을 몰고 들어왔다. 그들의 피리 소리가 넓고 푸른 하늘로 솟아올라 고요 속으로 사라졌다.

헛간 근처 계사에서 엘리스는 아직도 계란 바구니를 채우지 않은 채 닭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에드워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는 제일 덩치 크고 성질 고약해 보이는 닭에게 말했다. “너는 왕이고, 넌” - 그는 점박이 무늬의 깃털을 한 작은 암탉을 가리키며- “여왕이야, 넌 엄마처럼 친절하게 생겼거든.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기사가 되는 거야. 우린 스코틀랜드에 맞서서 곧 대전쟁을 치를 거야, 우리 편이 이기는 게 확실하니까 신경 쓸 건 없어.”

그 때, 에드워드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엘리스를 발견했다. “엘리스 누나.” 그는 소리치며 펄쩍 뛰었고 그러자 엘리스를 껴안기가 더 수월했다. “엘리스 누나, 나 잊지 않구 있었네.” 에드워드가 그녀에게 포옹을 하자 엘리스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일이 잘 풀릴 것 같다.

“이리와, 누나, 누나도 기사 시켜줄게. 우린 북쪽 마구간으로 행군할 거야.”

“에드워드, 배 주리지 말고 따뜻한 집에서 살게끔 일하라고 여기에 보내 왔더니 일은 안하고 닭들이랑 기사 놀이나 하구 앉아있네. 생각이 있는 거니?” 엘리스는 에드워드의 코를 잡아 비틀고 그의 머리카락 사이에 끼

워진 얼룩무늬 깃털을 잡아 뺐다. “자, 요리사 아주머니가 좋아하시게 계란을 많이 모아줄게. 그리고 나서 우리 둘이 같이 얘기하는 거야.”

“엘리스 누나, 저택에는 웬일이야?”

“니가 바보 같이 굴고 있을 거 같아서 어찌구 있는지, 여기로 보내길 잘한 건지 확인하러 왔지. 니 말대로, 내가 니 누나잖아. 요리사 아주머니한테 한 거짓말은 다 뭐니?”

“거짓말은 아니다 뭐, 누나. 나두 그냥 누나가 있었으면 한거야. 요리사 아주머니 아이들은 다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잖아. 나 데리고 가려고 온 거야?”

엘리스가 그를 구해주러 왔다고 이제 다 잘될 거라고 그를 안심시켜주기도 전에 그는 말했다. “아니지, 그렇지, 누나? 난 여기가 너무 좋아. 거의 날이면 날마다 배불리 먹고 요리사 아주머니가 나 때문에 화가 나 있을 땐 닭들과 같이 자면서 이렇게 연극을 해. 아무도 나를 쫓아내지 않고 아널프 주인님도 내 이름을 아신다구.”

그래서 엘리스는 상상은 때론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엘리스는 자기 마음만 편하자고 에드워드를 여인숙으로 데려 가지는 않을 생각이었지만, 여기로 에드워드를 보내길 잘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슬픔, 실망과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 쉬었다. 계속해서 한숨을 쉬고 또 쉬는 것이 기분이 좋았다. 그녀의 한숨은 흐느낌이 되었고 에드워드가 전쟁을 위해 닭들을 무장시키는 사이에 그 계사에서 엘리스는 난생 처음 물어보았다. 에드워드는 그녀의 어깨와 손을 토닥거리며 어린 아이로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녀를 달래주었다. 그리고 흔들거리는 앞니를 혀로 움직이면서 엘리스의 기분을 풀어주었다.

주방으로 가는 길에 에드워드는 엘리스에게 하루 밤 자고 가라고 조르기 시작했고, 그녀가 없는 것을 알고 제닛이 꾸짖을 테지만 아직 에드워드를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낙천적인 상상도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엘리스는 에드워드의 말에 순순히 따랐다.

빵과 베이컨으로 저녁을 먹고, 엘리스는 에드워드가 주방 한 귀퉁이에 지푸라기를 쌓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가 잠자리에 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러는 내내 에드워드는 저택에서의 생활을 그녀에게 얘기해주었다. 연회에 참석한 실크 옷을 입은 영주들과 숙녀들이 말을 타고 나가 사냥을 하고 촛불이 켜진 멋진 홀에서 가을 낙엽처럼 춤을 추는 얘기, 저

택을 찾아온 기사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연습했던 대로 쟁쟁 칼 소리를 내며 서로에게 검을 휘둘렀다는 얘기, 회반죽과 벽돌을 같이 섞어 발라서 흙의 한 구석에 거의 하늘에 닿을 정도로 커다란 새 탑을 세우는 석공들의 얘기도 해주었다. 가을에 커다란 말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의 짜릿함, 뽀뽀 신발을 신은 주교와 신부들이 속속 도착하는 긴장되는 행사 준비과정, 마을에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돌아다니던 커다란 성난 멧돼지를 대적하기 위해 말을 타고 나가는 남작의 하인들을 보는 짜릿함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그러다가 에드워드는 녀두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온갖 자질구레한 일만 도맡아 하고 도리깨질이나 쟁기질은 거들 수도 없고 작고 허약하다고 놀림만 받고 요리사의 치마폭에 싸서 계란 모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조롱을 당한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눈꺼풀이 거의 붙었다 싶을 때 에드워드는 말했다, “이야기 좀 들려줘, 엘리스 누나.”

“난 이야기 같은 건 몰라.”

“분명 알고 있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글쎄에, 제닛 아줌마가 그러는데, 한 지역의 시장님이 여인숙에서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박고 자기를 고양이라고 착각해서 밤새 바닥에서 쥐구멍을 살피면서 잤데.”

“그건 이야기가 아니야, 누나. 요리사 아줌마는 나한테 이야기를 들려줘. 이야기에는 영웅이 나오고 용감무쌍한 일도 나와야 해.”

“글쎄, 그럼, 옛날에 키도 작고 몸집도 작은 한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하기 싫은 일이어도, 때론 놀림을 받아도 할 일은 반드시 하고야 마는 아주 용감한 아이가 있었어. 이건 이야기가 되나?”

“비슷하긴 해, 누나.” 그리고 에드워드는 눈을 감았다. 희미한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올빼미 두 마리가 저택 마당에서 부엉부엉 하고 울 때, 에드워드와 엘리스는 서로가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안전하고 따듯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은 얼굴의 털이 검게 찌든 복실복실한 양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털을 깎아주는 날이었다. 엘리스와 에드워드는 빵과 맥주를 아침으로 먹고 이 큰 행사를 보기 위해 강을 따라 내려갔다.

에드워드는 자기 빵을 금세 먹어 치웠다. “나 아직두 배고파, 누나, 여긴 풀밖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풀을 먹어도 좋은지 안 좋은지 누난 알아?”

“먹어봐.”

에드워드는 풀을 입에 넣었다. “이빨 운동에는 딱 인데, 입맛만 버렸네, 맛이 …… 풀 맛이다, 딱 그거야.”

“그럼 먹지 마.”

“누난 이제까지 먹어본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추울 때 먹는 뜨끈뜨끈한 스프, 난 그래.”

“오래 전에 어떤 수도사가 나에게 무화과 열매를 줬는데, 맛이 끝내줬어, 누나, 부드럽고 달콤했어. 그 후로 삼일 동안은 손가락에 밴 무화과 냄새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었어. 혹시 그 빵 다 먹을 거야, 누나?”

그러자 엘리스는 자신의 빵을 에드워드에게 건네주었다. 에드워드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고 엘리스는 처음부터 그 빵을 즐 작정이었다.

강의 한 쪽은 댐처럼 되어 있어서 빨래터로 쓰였다. 남자들은 강물에 몸을 허리까지 담그고 있었고, 양처럼 머리가 덩수룩한 양치기들은 복슬복슬한 이 동물들을 물 속에 몰아넣어 빠진 털은 훑어내고 강력한 노란 비누로 털을 문질러댔다. 강가는 개들이 짓는 소리, 양들이 매에 하고 우는 소리, 남자들의 고함과 욕지거리, 어미 풀에서 떨어진 새끼 양들이 크게 울어대는 소리로 야단법석이었다. 에드워드는 어미 양에게 새끼를 찾아주는 일을 맡았다. 그는 큰소리로 울어대는 새끼 양을 낚아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제 어미를 찾아주었고 그러면 그 양들은 바로 에드워드를 밀어 제치고 서로 코를 비벼대는 것이었다.

날이 점점 더워지자 강물이 더 시원해 보여 엘리스도 허리춤에 치맛자락을 끼워 넣고 물 속으로 들어갔다. 지쳐있던 남자들은 일손이 늘자 좋아했고 엘리스도 곧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엘리스가 털이 복슬복슬한 양의 검은 얼굴을 잡고 있고 남자들이 털을 씻겼는데, 한 늙은 암양이 엘리스의 손길을 거부하며 공격을 해왔고, 두 앞발을 그녀의 가슴팍에 대고 물 속으로 밀어버렸다. 쿨럭쿨럭 하고 물을 침범거리면서 양의 등에 비누칠을 하던 남자와 일을 바꿨다. 털이 깨끗해진 양들은 염소처럼 민첩하게, 돼지처럼 굼주린 듯 강둑으로 헤엄쳐 가서 짹짹 물 밖으로 나왔다.

서너 시가 되자 일은 모두 끝났다. 에드워드와 양치기들은 들을 가로질러 양을 몰고 가서 우리 안에 넣었고 엘리스는 기지개를 펴고 젖은 손을 치마에 닦았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녀는 손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손이 너무 희고 부드러운 게 아닌가. 몇 시간을 강력한 비누로 거품을 내며

양털을 씻다 보니 차가운 물로는 몇 년을 해도 안 되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그녀의 손은 깨끗하기 그지없었다. 손가락 사이에도, 손톱에도, 손바닥 손금 사이사이에도 때가 없었다. 그녀는 나무에 기대 앉아 손을 들어 꼼꼼히 살펴보며 감탄을 연발했다. 어찌면 이렇게 깨끗할까. 어찌면 이렇게 흰까.

엘리스는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렇다면 다른 부위도 때를 밀면 그렇게 하얗고 깨끗하게 될까? 그녀의 얼굴도 희고 깨끗해질까? 윌 러셋의 말이 옳은 걸까?- 때를 밀면 예뻐질 수 있는 걸까? 상상한 마른 팔과 큰 발을 가진 때 투성이의 엘리스는 예쁜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검은 곱슬머리에 눈이 크고 슬퍼 보인다는 얘기도 들었고 심지어는 예쁘다는 소리도 들은 적이 있었다.

엘리스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양을 씻기는 일은 다 끝났고 내일 털깎기 작업을 위해 양의 털을 말려야 하기 때문에 양치기들은 양을 외양간으로 몰아넣었다. 강은 여기 저기 떠다니는 기름기 묻은 노란 비누 거품을 제외하곤 텅 비어 있었다. 엘리스는 더러워진 빨래터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서 옷을 벗은 뒤 물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노란 비누와 모래자갈 한 줌을 가지고 살갓이 따끔거리도록 몸에 문질러댔다. 강물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몸을 웅크리고, 머리도 감았고 추워서 소름이 돋을 때까지 머리카락이 주변에 둥실둥실 떠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엘리스는 얇은 물에 서서 제 몸을 살펴보았다. 약간 발그레해지고 너무 오래 젖어 있어서 쪼글쪼글 해지긴 했지만 훨씬 더 깨끗해져 있었다. 예뻐졌을까?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빠진 이빨도 없고 팔다리도 멀쩡한데다, 얼굴에 곰보 자국이나 나쁜 짓을 했다는 흉터도 없었으며, 산과도 인정했던 커다란 두 눈에는 이제 슬픔보다는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엘리스는 옷을 빨아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다시 입고 벽난로 앞에서 조금이라도 말리기 위해 저택의 주방으로 달려갔다.

벌써 에드워드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내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크리스마스, 부활절, 너의 축일에 다시 올게, 약속해. 그때는 니 앞니가 다시 자란 걸 봐야지.” 에드워드는 미소 지었다. 남자다운 일도 해보고, 할이라는 덩치 큰 양치기가 목마를 태워 그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등 에드워드에게 그 날은 즐거운 하루였다. 그는 저택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만족했고 요리사 아주머니의 보살핌과 엘리스와

의 우정도 만족스러웠다. 에드워드는 문득 자신이 작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엘리스는 그를 안아주고 한 대 툭 쳤다. 그리고 목이 따끔거리고 눈이 시려오는 느낌이었다. 또 눈물이 날지도 모른다는 뜻이었다. 이제 그녀는 어떻게 우는지 알고 있었다. 엘리스는 저택을 나와 길을 가면서 몇 걸음도 채 못 가 자꾸만 뒤 돌아 손을 흔들고 또 흔들었다. 마침내 길이 굽고 에드워드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보이는 것은 눈앞에 놓인 길 뿐이었다.

## 16. 아기

어느 따듯한 날 저녁, 마치 온 세상이 숨죽이고 있는 듯 고요했다. 천둥이 치자, 엘리스는 하늘이 땡 뚫리기 전에 황급히 창문으로 가서 나무 셔터를 단단히 고정시켰다.

바로 그때 말을 탄 사람들이 여인숙 마당으로 들어섰다-온 몸을 보석으로 치장한 꽤 부유해 보이는 남자와 무척 불편해 보이는 뚱뚱한 부인, 그리고 밝은 표정은 찾아 볼 수 없는 셀쭉한 얼굴의 남녀 하인들이었다. 그 남자는 뚱뚱한 부인을 안고 황급히 여인숙 안으로 들어왔고 부엌 떼기 탐이, 말들이 제 몸을 말리고 밤 새 먹는 모습을 지켜볼 요량으로 말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두었다.

귀한 손님처럼 보였기 때문에 제닛은 그들의 시중을 듣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다.

“저녁을 드릴까요, 손님? 차가운 소고기와 이 나라 최고의 빵을 드시겠습니까요? 맥주 한잔, 아니면 라인 와인이라도?”

“우린 식사를 할게 아니오.” ~부유해 보이는 남자가 말했다.

“그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움이 안돼요, 부인, 당신이 신부나 마술사나 약장수가 아닌 이상. 아내의 배 속에 벌레가 들어가서 아내를 갇아 먹고 있소.”

그 여자는 조금씩 신음소리를 내다가 가까이서 들려오는 천둥소리마저 집어 삼킬 정도로 크게 고향을 내질렀다. 제닛은 그 남자가 커다란 탁자

에서 접시와 맥주잔을 치우고 그의 아내를 그 위에 눕히자 제닛은 성호를 그었다.

남편 존 다르크에게서 맥주잔을 닦아채면서 제닛을 그것을 신음하는 여자에게 주었다. 제닛은 여자를 잠시 바라보더니 자신의 붉은 손을 그 부인의 부풀어 오른 배에 얹었다. “사실, 손님, 제 생각에는 부인이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요.”

그 남자는 불쾌하고 경멸에 찬 표정으로 제닛을 바라보았다. “허튼소리 마시오, 바보 같은니! 내 아내는 우리가 결혼한 이후로 아기를 낳은 적이 한번도 없고 늘 불평만 해댔소. 아내는 정말 최근에야 살이 쪼고, 그것도 청어 파이와 아몬드 푸딩 때문이요. 아이를 가졌다고? 말도 안 되지!”

제닛은 다시 한번 잠시 여자를 훑어 보았다. “가능하다 마다요, 손님, 곧 낳겠는걸요.”

그러자 같이 온 사람들은 탁자에 누운 여자를 쳐다보았다. 일어나 앉으려고 기를 쓰면서 너무 힘을 주는 바람에 부인의 얼굴은 거의 터질 지경이었다.

“말도 안돼.” 이번에는 약간 자신 없는 말투였다. “어떻게 해야지?” 그 여자는 황소처럼 큰 소리로 울어댔고 존 다르크는 차라리 비를 맞는 게 낫겠다 싶어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 길로 조금만 걸어가면 마을에 산파가 있어요. 손님의 하인에게 길을 알려드리죠.” 제닛이 말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여인숙은 우루릉광광 천둥 치는 소리, 진통하는 산모의 울부짖음, 그녀의 남편이 쓸데없이 끙끙대는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마침내 남자 하인이 돌아왔고 그는 마치 물로 된 인간처럼 흠뻑 젖어 있었다. “당신이 말해준 산파의 집을 찾았는데.” 그는 말했다. “산파도 없었고 불도 꺼져 있었어요. 곧 태어날 다른 아기를 받으러 간 것 같아요. 이 아긴 혼자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부인이 다시 힘을 잔뜩 주고 고통을 지르기 시작하자 사방이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다. 남편은 부인에게 루비반지를 쥐어 주었다. 제닛은 그녀에게 맥주를 먹여 주었다. 남자 하인은 여주인에게 심술 난 표정을 해보이고는 밖으로 나가 존 다르크와 같이 비를 맞았다.

밤이 깊어지자 부인의 고통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제닛은 허둥지둥 움

직였지만 차를 꿰고 빵을 굽는 것은 알아도 아기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고 제 아무리 부산하게 움직여도 도움이 될 건 하나도 없었다. 매지스터 리스는 들락날락 하면서 도와줄 수는 없었지만 자리를 뜨려고 하지는 않았다. 엘리스는 그 속에 끼어들기 싫은 마음에 계단 밑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서있었다. 그 소리와 냄새는 너무도 생생했고 엠마 블런트에 얽힌 그녀의 실수를 생각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정과 연민 때문에 엘리스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고 얼마쯤 호기심이 발동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 상황을 끝내거나 빨리 지나가게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내야 할 것만 같았다.

다른 사람들이 끄끙대는 소리도 거의 산모의 소리만큼이나 커지자, 제닛은 그들을 모두 바깥으로 내보냈다. 자기가 모시는 여주인보다 더 큰 소리를 질러대는 여자 하인, 울먹이는 남편, 덧창이 닫힌 창문에 서서 도울 것이 없는지 자기의 위대한 저서를 정신없이 훑어보며 가끔씩, “제닛, 당신은 백합 뿌리를 찾아야 해요, 아니면 처녀의 머리카락과 개미알을요! 누가 독수리돌맹이(독수리가 알을 쉽게 낳기 위해 둥지로 가져간 다고 믿어져 온 순산과 부부화합의 부적)를 가지고 있죠?” 하고 외치던 매지스터 리스까지 밖으로 내보냈다.

마침내 제닛은 신음하는 여자를 그녀의 코트로 덮어주고 속삭였다.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네요. 아기는 못 나올 거예요.” ~그리곤 방을 나가버렸다.

계단 아래 있는 엘리스와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눈물범벅이 되어 고통스럽게 진통하는 부인만 남은 텅 빈 방을 번개 불이 환하게 비쳤다. 엘리스는 몸을 떨었다. 내가 해야 하는데, 그녀는 중얼거렸다. 난 할 수 없어. 나는 해본 적은 있지만 실패했어. 넌 해야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시 말했다. 절대 바보가 아니야, 매지스터 리가 말했어. 넌 바보야, 그로미트가 말했잖아. 용기가 있고 상식도 알고 있어, 윌 러셋이 말했어. 너는 포기했어, 산파가 말했잖아. “살려줘요.” ~탁자 위에 누워있는 여자가 외쳤다. “꿈쩍 말고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계단 뒤에서 나오며 엘리스가 말했다.

엘리스는 부인이 일어서서 방을 걷도록 부축했고, 가끔 걸음을 멈추게 하고 맥주를 마시게 했다. 그녀는 부인의 배를 문지르고 기름을 바르고



쓰다듬었다. 엘리스는 부인이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무릎을 꿇었다가 다시 눕도록 했다. 엘리스는 산모를 돌봐준다는 성인이란 성인에게는 모두 빌었다. - 성 마가레트, 성 길레스, 성 펠리치타스, 심지어는 말을 지켜주는 성 로이와 돼지를 보호하는 성 안토니에게까지 빌었다. 엘리스는 그래서 나쁠 게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산과가 했던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을 뿐 아니라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도 했다. 천둥이 멈추고 밤이 지나 새벽이 되어갈 무렵, 아기 보다는 돼지고기 파이나 맥주를 더 많이 봤을 법한 흠집투성이의 그 나무 탁자 위에서 엘리스는 아버지의 검은 머리 카락과 어머니의 붉은 얼굴을 닮은 남자 아이를 받아냈다.

엘리스는 깨끗한 린넨 바구니도 연고나 약초도 없었기 때문에 부인의 옷단을 찢어서 만든 굵은 실로 아기의 탯줄을 묶고 부엌에서 쓰는 고기 썰는 칼로 그것을 잘랐다. 탯줄을 봉합할 커민(약용 열매)이나 세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엘리스는 손에 침을 뱉어서 잘린 탯줄 끄트머리를 비볐다.

그 다음 엘리스는 문을 열었다. “여기요, 선생님.” 엘리스는 아기를 아버지에게 안겨주며 말했다. “배 속에 벌레가 있던 게 아니라 시끄럽고 건강한 사내 아기가 있었네요.”

아기 엄마는 안에서 소리쳤다. “배 속에 벌레라니, 나 참! 사실 난 뱃속에 용이 들어가서 내 내장을 먹어치우는 줄 알았어. 고 녀석 나 좀 쥐봐요, 또 그렇게 말썹을 피워서 엄마를 아프게 하라고 내가 혼구멍을 낼 테니, 응.” 감동으로 망연자실한 남편은 아기를 부인에게 데려갔다. 그녀는 작은 아기를 야단치고 꾸짖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내 아기의 검은 머리를 쓰다듬고 작은 손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꾸중은 속삭임이 되었고 커다란 목소리는 기빠서 아기를 어르는 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엄마와 아기는 여인숙 탁자에서 그렇게 잠이 들었다.

엘리스는 그 남자와 그의 하인들이 존경심에서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을 발견했다. “이건 기적이야.” 그들은 속삭였다. “우린 불임이던 여자가 아기를 낳는 장면을 목격한 거야, 배 속에 벌레가 천진난만한 아기로 바뀌었어, 난데없이 나타난 여자 아이가 용을 물리쳤어!”

그 남자는 엘리스에게 말했다. “잘했어요 아가씨, 아가씨는 천사인가 아니면 성인이신가?”

엘리스는 그를 바라보았다. “천사요? 나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인이군!” 그는 외쳤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 모두 놀라움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에요,” 앨리스는 다시 말했다. “성인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에요. 환장 하겠네 정말, 전 단지 아기를 받았을 뿐이에요. 당신의 부인은 배 속에 벌레를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구요.”

그러나 남자와 그 하인들은 여전히 앨리스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부인을 치료하고 기적을 일으켜 아기를 얻게 해준 그녀에게 감사하며 기도를 했다. 내친 김에, 여자 하인은 따뜻한 겨울용 망토를 주십사 빌었고, 또 그녀의 턱에 있는 사마귀를 떨어지게 해달라고 빌었다.

앨리스는 그들을 밀어 제치고 따뜻한 밤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다. 달은 갓 만든 치즈만큼이나 둥글고 하얀 모습이였다. 오래된 참나무 아래 벤치에는 존 다르크와 매지스터 리스가 맥주를 같이 마시면서 앉아 있었다. 매지스터 리스는 그녀에게 윙크를 하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앨리스도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서 앨리스는 진짜로 웃어 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입가로 단숨에 달려 나온 웃음은 맑은 밤공기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6월 1일, 그날 밤 그것은 진정한 기적이였다. 매지스터 리스가 앨리스에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로마의 달의 여신이자 여성과 탄생의 여신인 주노(Juno)의 이름을 딴 달이 바로 유월(June)이다.

## 17. 산과 견습생

유월은 꽃으로 만발했다-데이지, 참제비고깔, 톱니꼬리조팝나무, 백리향, 디기탈리스, 딸기나무, 보라색 엉겅퀴꽃, 활짝 핀 소용돌이 모양의 노란색 회향꽃 등. 앨리스는 풀밭에 앉아 생각했다. 그 돈 많은 상인의 아내는 앨리스를 솔즈베리로 데려가서 그녀의 아기를 돌보아 줬으면 했고 아마도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켜주었으면 했을 것이다. 상인은 새 신발과 어떤 성당에 대해 말하며 앨리스를 구슬렸다. 매지스터 리스는 여인숙을 떠나서 과부인 누이와 함께 사는 옥스퍼드의 하숙집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이였다. 그리고 그는 앨리스를 고용했으면 하는 뜻을 내비쳤다. “내 누나는 점점 나이가 들어 내가 돌보는 것 이상으로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마 당신은 옥스퍼드를 좋아 하게 될 것이오.” 앨리스는 초대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제닛은 싹싹한 일꾼을 잃고 싶지않은 마음에 얼굴을 찡그리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슬픈 것은 이 여자 아이를 보는 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제닛은 앨리스가 떠나지 않으면 그녀에게 가끔 돈을 한두 푼 주겠다고 말했다.

풀을 씹으며 앨리스는 미소를 지었다. 이 세상에 오갈 데 하나 없었던 그녀가 갑자기 갈 곳이 넘치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계속 해서 풀을 씹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원하는 것이 될까? 그녀는 매지스터 리스에게서 배운 대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여인숙에서 일하는 여자아이도 당연히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눈을 감자 매지스터 리스의 얼룩덜룩한 얼굴과 친절한 눈빛이 보였고, 제닛의 쾌활한 목소리가 들려왔으며, 솔즈베리에서 온 상인이 입었던 옷에서 풍겼던 짙은 향내가 나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상인의 아기가 손을 꼼지락거릴 때 활기차게 꿈틀거리던 경이로운 생명력이 다시 한 번 느껴졌다. 교회의 초가지붕 밑에 둥지를 틀던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고, 나오지 않아 애먹이던 아기를 잘 얼러서 받아내고 의기양양했던 산파의 얼굴이 보였으며, 탯사가 낳은 송아지들의 보드라운 감촉, 앨리스 리틀이라고 부르는 아기의 끈적하면서도 부드러웠던 느낌이 되살아났다.

“그러면 그렇지.” ~앨리스는 눈을 크게 뜨면서 낮게 중얼거렸다. “그렇게 말구.” ~그녀는 여인숙 일꾼도 아니고 나이든 여자의 수발을 드는 간병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장차 산파가 되겠다는 새로운 희망을 품은 산파 견습생이었다. 그녀는 아직도 배울게 많았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이 으레 그럴지 모르지만, 춥고 힘들고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는 곳임을 알고 있었다. 바로 지금 앨리스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이었고, 그곳은 배는 주리는 십상이지만 마음만은 편한 곳이었다.

그날 밤 앨리스는 자기가 아기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아기를 낳고, 날이 새도록 아기 낳는 꿈만 계속 꾸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녀는 상인과 그의 가족이 솔즈베리로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매지스터 리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그의 누이에게도 안부 인사를 전했으며, 제닛에게 포옹을 한 뒤 머리 빛, 비누, 위대하고 성스러운 책의 한 페이지를 조끼 속에 쑤셔 담고 마을로 향했고 오렌지 색 고양이도 그녀의 뒤를 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존 다르크의 집으로만 알려졌던 여인숙은 ‘고양이와 치즈’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발에 치즈조각을 묻힌 오렌지 색 고양이가 그려진 커다란 간판이 걸리게 되었다. 몇 년도 안 돼 모두들 그 이유를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마을로 뻗은 길을 따라 엘리스는 활기차게 걸었고 설레는 가슴을 안고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툴루랄라 소리를 내다가 크고 또랑또랑하게 퍽꼬리처럼 노래를 불렀다. 어떤 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또 어떤 것들은 그만하면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가사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인생과 희망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길에 대한 그녀의 느낌을 노래하기도 했다.

“여름아 오너라, 꽃들이 피어라, 태양아 솟아라.” 엘리스는 노래했다.

“그르렁.” 고양이도 노래했다.

오래 전에 봤던 프랑스 장미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놀라면서 엘리스는 산과의 오두막집 문을 두드렸다.

“제인 아주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그녀는 인상을 잔뜩 찌푸린 산파에게 말했다. “이제 착한 견습생이 될게요. 아기와 탄생에 대해서도 알고, 노래 부르기, 닭 요리하기, 울기, 웃기, 글 읽기도 배웠어요.”

“그게 다야?” 제인이 물었다.

“산파 견습생 치고는 꽤 훌륭한 지식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근데 그게 다야?”

“그게 다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왔잖아요.”

그러나 제인은 엘리스를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엘리스는 오두막 앞에 서 있었다. 눈이 시리고 마음이 아파왔다. 이런 상황은 생각도 못했고 제인의 오두막집 문을 두드리고 환영을 받는 것 말고 다른 것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었다. 제인이 엘리스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오후도 되기 전, 나팔꽃이 미처 지기도 전에, 엘리스는 절망과 혼란에 빠져 마을을 떠나면서, 한 걸음 내딛을 때 마다 마을과 나머지 세계를 갈라놓는 보이지 않는 선 너머로 다시 내몰리는 것 같은 무서움을 느꼈다.

그러나 고양이는 떠나려 하지 않았다.

“니가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나도 알아, 고양이. 나도 떠나기 싫어. 하지만 여기엔 내가 머물 곳이 없어. 돌아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 아

주머니가 날 받아주지 안잖아.”

그르렁은 가슴의 하얀 얼룩 무늬 아래로 앞발을 찢러 넣으면서 배를 깔고 누워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난 뭘 해야 하지?” ~앨리스는 앉아서 꿀벌이 웅웅거리는 소리와 고양이가 그르렁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갑자기 앨리스가 벌떡 일어섰다. “맙소사, 니 말이 맞아, 고양이! 제인 아주머니는 아주머니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한 적이 있어.”

앨리스는 나래지치 이파리, 나무딸기, 조그마한 산딸기를 따 모아 치맛자락에 싸서 다시 오두막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산파의 오두막집 현관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서 단호히 문을 두드렸다.

“제인 샤프! 저예요, 앨리스, 아줌마의 견습생이요. 또 왔어요. 들여보내 주시지 않아도 계속 해 볼 참이에요. 아주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울 게요. 그리고 시도해 보고, 실패도 각오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을 거예요.”

현관문이 열렸다. 앨리스는 안으로 들어갔다. 고양이도 따라 들어갔다.



## 작가의 말

아이를 낳는 여자가 있고 그 여자의 출산을 도와준 또 다른 여자가 존재해온 한 그 만큼의 시간 동안 산파는 존재해왔을 것이다. 오늘 날 선진국에서는 병원에서 대부분의 분만이 의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전 세계 어디서나 그런 것은 아니며 분명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아기를 낳은 대다수의 여성들이 다른 여성의 도움으로 집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여성의 출산을 돕는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산파라고 불렀다. 산파는 “여자와 함께” 라는 뜻의 중세 영어에서 유래했다. 산파 일은 종종 마을에서 나이가 가장 지긋한 여성이거나 아이를 가장 많이 낳은 여자가 맡곤 했다. 어떤 여자는 가난하고 무지하고 지저분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여자는 달리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여자들을 위해 산파로 나섰다. 운이 좋은 산모는 경험과 실습을 통한 투철한 직업정신을 소유하고 실력을 갖춘 노련한 산파이자 인내심, 판단력, 청결한 손을 가진 산파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의사나 다른없이 대우하거나 아니면 거의 마녀로 취급하는 등 산파에 대한 시각은 가지각색이었다. 중세 잉글랜드에서는 산파 일이 명예로운 직업이 못되었는데, 여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산파들은 아무런 감독도 규제도 없이 일을 하다가, 16세기가 되어서야 헨리 8세가 이 의학적인 직업을 중앙에서 관리, 감독하려는 노력을 시도했고, 그 결과 산파를 등록하고 규제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중세시대 산파가 했던 일은 여성에서 여성으로 전해진 상식과 약초 지식 그리고 미신이 혼합된 것이었다. 거의 아무런 혁신이나 진전도 없이 오랫동안 해오던 방식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성의 지식” 이라는 것은, 이 책에서 매지스터 리스가 그의 위대한 백과사전에 제인 샤프의 지식을 받아 적는 것으로 묘사되었듯이, 신빙성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일반적으로 산파들은 자기들의 상식을 활용해, 진통하는 산모가 긴장을 풀도록 도와주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심시키고 달래주며, 그들 재량껏 자연적인 존재 혹은 마법의 존재에게 빌고 일이 잘못 돌아가는 순간을 즉각 파악했다. 제인 사프처럼 어떤 산파들은 경험이 축적되어서 언제 어떻게

게 나서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다. 어떤 산파들은 괜히 나섰다가 고통스러워하는 산모를 더욱 괴롭히기만 했다. 중세의 상식이란 것은 평균에 대한 것은 전무했고, 해부학에 대한 것도 거의 없었으며, 온통 마법과 미신 뿐이었다.

약초는 중세 산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약재였다. 약초를 구별하고 캐고 말리고 준비하는 것은 고대에 사용된 방법과 의식에 따랐다. 그 방법과 의식은 약초를 언제 어디서 캐는지, 그 이파리나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맛이 나는지, 그리고 약초를 지배하는 행성의 영향까지도 고려한 것이었다. 화성의 영향 아래서 생긴 신체 기관의 불만을 치료하는데 쓰인, 화성의 영향을 받은 식물은 대개 별 효과가 없었고, 식물의 꽃들이 피방울이나 우유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피를 맑게 하거나 젖을 더 나오게 하는데 쓰인 것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태생초는 자궁수축을 유도하고, 다복쑥은 진통제로 쓰이며, 홉 열매는 진정제로 쓰이는 등 많은 약초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기도 했다. 산파들이 썼던 일부 약초의 추출물은 오늘날의 의학에서도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벨라도나는 경련과 통증 완화에, 그을린 호밀씨는 자궁 수축 촉진에, 사리풀과 양귀비는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

미신에는 유물의 사용, 성스러운 우물물, 부적과 마법의 주문 등이 있다. 해산으로 인한 열병에는 달팽이 젤리가, 진통을 완화시키는 데는 장어간이 좋다고 여겨졌다. 귀중한 돌들도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으로 벽옥, 에메랄드, 루비는- 임신부가 손에 쥐거나 가루로 뺨아서 와인에 섞기도 하였다. 만일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마법의 덕분이 아니라 산모를 진정시킨 산파의 노력과 그 효과에 대한 산모의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산파가 실력이 뛰어나고 양심적이라 해도 정상적인 출산에서 산파는 단지 도움을 주는 정도의 존재일 뿐이었다. 산모의 골반이 작고 기형이라든가 아이가 자기가 나올 통로를 막고 들어앉아 있는 경우라면 마법의 돌이나 약초 시럽도 이런 심각한 문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중세에는 영양실조와 보살핌의 부족, 서투른 산파들과 형편없는 의학지식 때문에 출산 과정에서 많은 산모와 아기들이 죽었다.

분만을 돕는 의사들이 차츰 증가하면서 산파들의 평판은 나빠졌지만, 1960년대 이후, 미국이나 그밖에 지역에서 산파라는 직업에 대해 새로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과업은 현재 규제를 받고 있으며 개별적인 산과들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늘날 산과들은 여성들에게 깨끗한 손, 마법이 돌, 달팽이 젤리 이상의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산과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다. 일부는 간호사이기도 하다. 어떤 산과는 집에서, 또 어떤 산과는 병원에서 아이를 받기도 한다. 프랑스에서 산과는 사지 팜므(sage femme), 즉 현명한 여자이고, 덴마크에서는 요르데 모데르(jordemoder), 땅의 여자이며, 이디시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바르트스프로이(vartsfroy), 기다리는 여자이고, 하와이에서는 팔레 케이키(pale keiki), 아이의 보호자이다. 그 전통을 계속 지키려는 여성들을 위한 의학과 더불어 산과업은 전 세계에 계속 존재할 것이다.

## 카렌 쿠쉬먼

그녀가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진지는 오래되었다. 그녀는 말한다. “나는 왕, 왕자, 장군, 대통령에 대해 들으면서 자랐다. 그래서 다른 시대에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알고 싶었다.” ~중세 영어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녀는 첫 번째 작품 <버디라 부르는 캐서린>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 또한 뉴베리 상을 포함한 많은 상을 휩쓸었다. 쿠쉬먼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인간행동 석사학위와 박물관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최근 쿠쉬먼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존 에프 케네디 대학 박물관학과 부학과장을 역임하고 있다. 고양이 두 마리, 개 한 마리, 토끼 한 마리를 키우는 쿠쉬먼은 남편, 딸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거주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1. 국내서

안정효. 「영어 길들이기(번역판)」. 서울: 현암사, 1997.

최정화, 「최정화 교수의 통역 번역 노하우」. 서울: 넥서스, 2001.

### 2. 번역서

Koller Werner 저·박용삼 역: 「번역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7.

Bassnett, Susan 저·엄재호 역: 「번역학 개론」. 서울: 인간사랑, 1999.

### 3. 국외서

Robinson, Douglas. *Becoming a Translator: an accelerated cours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